

2024
No.122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

SAMYANG

당신의 오늘에 삼양의 100년을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삶이 더 나아졌다면
그건 어쩌면 삼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삼양은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패키징 분야에서 100년의 노하우를 담은
스페셜티 소재와 기술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합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4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3일(금) 14:3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인촌기념관
3월 15일(금) 18:00	상반기 상임이사회	삼양만나
4월 20일(토) 09:00	제2회 힐링트레킹(우천취소)	고대뒷산(개운산)
5월 8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패컬티 하우스
6월 13일(목) 11:00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남코스
9월 12일(목) 18:00	야구부 후원금 전달	고대 교우회관
9월 26일(목) 12:00	제2회 경영대 OB 골프고연전	페렘CC
9월 28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쿠마
10월 18일(금) 11:00	하반기 골프대회(우천취소)	몽베르CC 북코스
10월 21일(월) 17: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삼양만나
10월 21일(월) 18:00	하반기 상임이사회	삼양만나
12월 6일(금) 18:30	제42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SummerXMZ Party
- 05_ 사무국 소식
- 06_ 골프고연전
- 12_ 2024 정기고연전
- 16_ 하반기 상임이사회
- 17_ 수상자 선정 회의
- 18_ 교우의 밤 주최기수 97학번
- 22_ 교우 인터뷰
- 27_ 교우동정
- 32_ 교우기부
- 34_ 교우기고
- 42_ 학번별 소식
- 61_ 97학번 홈커밍데이
- 62_ 교우신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4 통권 제122호 Vol.44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SummerXMZ Party

2024.8.20(화)

일진빌딩 15층 다이닝룸



2024년 8월 20일(화) 저녁 6시에 청담동에 있는 일진빌딩 15층 다이닝룸에서 SummerXMZ파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교우들이 교우회와 더 가까워지도록 젊은 교우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돼 선후배, 동기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909, 009 회원들이 기획했다.

X세대인 89학번부터 밀레니얼(M)세대인 00학번대와 Z세대인 14학번까지 총 60명이 참석했다. 각자 자율 복장에 고대인의 컬러인 붉은색(크림슨색)이 어디든 들어가도록 스타일링 하는 것이 이날 드레스 코드였다. 교우들은 각자의 개성대로 빨간색 상의부터 목걸이, 행커치프, 넥타이, 볼캡, 멜빵, 머리띠, 안경, 가방, 스마트워치 액정에 고려대학교 로고를 띄우는 등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동섭 회장은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새단장 후, 외부 인사의 방문은 경영대 교우들이 처음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경영대 교우회장을 맡고 나서 교우회 활성화와 재밌고 유익한 교우회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써왔다. 다행히도 많은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해줘 주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교우회의 허리가 되는 90년대 교우들과 00

학번대, 10학번대의 젊고 유망한 교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면 교우회는 더 발전할 것이다. 오늘 모임에서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티에 참석한 교우들은 이동섭 교우회장이 제공한 만찬으로 즐겁게 식사를 한 후, 909, 009가 기획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젊은 교우들의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많은 찬조 물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테이블별, 개인별 당첨자를 선별하여 골고루 경품으로 증정했다.

사회자로 나선 04학번 백철운 교우는 “후배들이 교우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중간에서 가교역할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있을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추억 나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대 교우회 행사에 처음 참여한 13학번 김혜준 교우는 “교우회 모임을 잘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참여해서 선배님들 뵙고 말씀 나누다 보니 고려대 경영대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러웠다. 앞으로 자주 모임에 참여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영대 교우회 사무국 3층으로 이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2차 공사 종료 10월 24일 리노베이션 준공식 가져

경영대 교우회 사무국이 2024년 10월 14일 교우회관 310호로 이전했다. 1997년 4월 18일 상반기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라 교우회관 408호에 사무국을 설치한지 27년 만이다.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승명호, 무역74)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우회관 환경 개선 작업으로 2024년 7월 초부터 약 3개월간 2차 공사를 진행했다.

1층과 2층은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새단장 했고 14개 교우회가 함께 사용할 3층은 각 교우회의 요청을 수렴하여 적절히 공간을 재배치했다. 반복되는 공간인 회의실과 창고, 탕비실을 한데 모아 공동공간으로 묶고 사무공간, 작업공간을 넓혀 공간 활용을 높였다. 또한 타일이 깔려있던 교

우회관 앞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새롭게 포장해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남은 4층은 외부 벽면 도색 철거를 완료했으며 교우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 준교우 단체가 이용할 계획이다. 30년 가까이 된 교우회관이 획기적으로 탈바꿈하여 입주한 교우회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 24일, 교우회관 1층 역사라운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고려대학교 교우회 운영 위원들이 모였다.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유익한 교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교우회관에 들어서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 교우들이 든든한 힘을 얻어가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리고 싶었다”며 “교우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① 310호로 이전한 경영대 교우회 사무국 ② 오픈카페인 자유·정의·진리 라운지 중 정의 라운지 ③ 14개 교우회들의 공동 창고 공간 ④ 새롭게 정비한 교우회관 앞 주차장

골
프
고
연
전

‘영원한 맞수’ 안암 호랑이와 신촌 독수리의 동문 골프대결

2024년 골프고연전 개최

페럼클럽CC



연세상경·경영대학 동창회
고대 경영대학 교우회

2024년 09월 26일(목) | 페럼클럽CC | 주최

골

작년 첫 대회에 이어 정기고연전을 하루 앞둔 2024년 9월 26일(목),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이하 연세대)가 주최하는 제2회 골프고연전이 경기도 여주시 소재 페럼클럽CC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페럼클럽CC는 동국제강그룹에서 운영하는 18홀 대중제 골프장이며 페럼(Ferrum)은 라틴어로 철을 뜻한다. 동코스과 서코스로 나뉘어진 골프코스는 세계적인 설계자 신시아 다이 맥그레이가 코스를 디자인했고 클럽하우스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하여 동국제강의 정체성을 담았다. 골프고연전 행사가 치러진 페럼클럽CC는 장선익(연세대 경영1) 동국제강 전무가 제공했다. 이날 행사 이후 KPGA 행사가 예

정되어 러프 길이가 길게 세팅되었는 등 코스 난이도가 높았다.

이날 행사에서 고려대는 63학번부터 12학번까지 이동섭 교우회장을 비롯해서 어윤대(경영63) 전 총장, 이선용(경영80) 베어트리파크 대표, 조성호(경영80) 전 회장 직무 대행을 포함하여 44명이 참가했다. 연세대는 63학번부터 13학번까지 넥센 타이어(주), (주)넥센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찬(경영95) 상경·경영대 동창회장과 (주)이에스앤에프 김정수(경영69) 회장, 방송인 손범수(경영82) 등 44명이 참가했다. 핸디, 성별, 학번 등을 고려해 적절히 섞어 22개조로 구성하여 즐거운 승부를 펼쳤다.



사진제공: 연세대학교 상경·경영 동창회



골프대회 시상

메달리스트	고려대 남상영(경영85)	72타
신페리오 1등	연세대 가삼현(경제75)	70점
신페리오 2등	고려대 한휘선(경영91)	70.4점
신페리오 3등	고려대 이도연(경영90)	70.6점
특별상 : 에이지 슈터	연세대 이동욱(경제63)	76타









찬조해 주신 분들

고대	
이동섭(경영89)	항남빵 96개
이차복(경영68)	상주 캠벨포도 3box(22봉)
이승주(경영03)	현금 10만 원
김성민(경영04)	풋조이X카시나 골프 모자 3개, 장갑 6개
양지현(경영13)	리베트 밀크씨슬 테아닌 영양제 20개
연세대	
강호찬(경영95)	세인트나인 골프공 89box, 드라이버 1개
김영진(경영75)	숙취해소제 레디큐 오리지널 드링크 세트 100개



약 5시간의 라운딩을 마치고 모든 참가자들이 만찬장에 모였다. 만찬장에서는 손범수(경영82) 아나운서가 MC를 맡았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하루가 됐으며 골프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밝힌 손 아나운서는 시상식과 함께 2부순서를 진행했다.

강호찬 연세대 상경·경영대 동창회장은 “다음 주에 현대해상 남자 골프대회가 여기서 열린다. 골프대회 열리기 전 주에는 단체 인사를 받지 않지만, 특별히 저희 행사를 위해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작년 1회 골프대회는 고대가 우승했고 성황리에 잘 마쳤다. 이번 2회 대회는 연세대가 주최했다. 오늘은 두 학교가 단합하는 즐거운 하루가 됐다”고 말했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은 “오늘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년에 강 회장님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고대·연대 졸업생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매년 열어보자고 논의했었다. 오늘 두 번째 대회를 열었는데 작년 못지않게 뜨거웠다. 고대와 연대는 존재만으로도 빛난다. 경쟁자이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상식을 마치고 OX상식퀴즈로 정답을 맞춘 졸업생들에게 경품이 증정됐다. 퀴즈는 양 학교 졸업생이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퀴즈로 고대 교우들에게는 연세대에 대해, 연대 동문들에게는 고려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두 학교 졸업생들의 화합과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첨 번회에 해당하는 두 학교 참가자들의 타수를 비교하여 승부를 확인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연세대가 6:4로 이겨 우승트로피와 1,000만 원 상금을 획득했다. 더 치열하고 즐거워질 내년 대회를 기대하며 입실렌티와 아카라카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마쳤다.

연세대	
김재우(경영81)	신세계백화점 50만원 상품권
이만규(경영89)	아난티엣부산 숙박권 1개
김동준(경제83)	일리 커피머신 1개
허세홍(경영88)	GS칼텍스 10만원권 1개
고강희(경제94)	가마르드 드레스 By 온프레 샴푸 세트 100개
김재홍(경제94)	깨끗한나라 선물세트 90개
이용석(경영98)	가평 장낙산 앞바다 배중 세트 104개
장선익(경영01)	페럼클럽CC 4인 라운딩권



2024 정기고연전 개최

야구, 빙구 승리로 2대 2 무승부

경기결과			
	야구	3:0	승
	빙구	4:3	승
	농구	54:57	패
	축구	1:2	패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친선경기대회(이하 고연전)

고려대 주최로 열린 이번 고연전은
9월 27일(금), 28일(토) 양일간 개최

전지훈련 중 사망한
럭비부 선수를 애도하며
럭비 경기는 열리지 않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2024 정기고연전이 열렸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8월 20일 전지훈련 도중에 사망한 고 김재완(체교23) 고려대 럭비 선수를 애도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개회사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해 후회 없는 경기를 해주길 바란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기상으로,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개로 승리를 향해 젊음의 구호를 외칠 때, 이번 정기전은 모두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신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연세대와 고려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고 동시에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는 동반자이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나가는 팀이다”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경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년 정기고연전은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를, 오후 5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진행했다. 둘째 날인 28일은 럭비 경기가 취소되고, 오후 2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했다. 빙구, 농구, 여자·남자축구 동아리 정기전도 같이 열렸다.

· 야구 | 2학년 투수의 반란, 3:0으로 야구부 승리 이끌다



개막식 이후, 김동원 고려대 총장의 시구로 야구 경기가 시작됐다. 1회말 고려대 유정택(체교22)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물꼬를 텃고 안재연(체교22)의 기습번트로 유정택 선수가 2루와 3루 도루에 성공해 테이블 세터다운 면모를 보였다. 진현재(체교24)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탬고 고려대 주장 박건우(체교21)의 안타로 1득점 획득하여 2:0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6회말, 조규택(체교21)의 솔로홈런으로 추가점을 얻어내면서 3:0이 됐고 연세대는 득점 없이 경기 종료. 2학년 정원진(체교23) 투수가 9이닝 동안 108구를 던지며 2016년도 이후 8년 만에 고려대학교 야구부 우승을 완봉승으로 이끌어냈다.



· 빙구 | 완벽한 팀워크로 4:3, 고려대 승리로 장식하다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빙구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를 펼쳐나갔다. 여러 번의 슈팅 찬스에도 번번이 막혔지만, 연세대 진영을 빠르게 파고든 고려대 권민재(체교21)의 어시스트로 최성수(체교23)가 득점했다. 뒤이어 신동현(연세대)가 1피리어드 종료 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었다. 2피리어드가 시작되고 권민재와 양태규(체교24)의 추가 득점으로 고려대가 경기를 주도했으며 3피리어드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던 연세대에게 2점을 실점했지만 치열한 접전속에서 썩을 얻어낸 권현수(체교22)가 골리와 1:1 상황속에서 만회골로 역전시켜 결과는 4:3. 고려대가 두 번째 승리를 얻었다.



· 농구 | 접전 혈투 끝에 54:57로 패배

고양 실내 체육관에서 뜨거운 응원전 속에 농구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2쿼터에서부터 연세대의 연이은 3점슛 성공으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 3쿼터까지 점수를 좁히지 못한 고려대는 4쿼터에서 양 준(체교21)의 자유투 성공으로 추격하기 시작해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문유현(체교23)의 슛으로 고려대가 역전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연세대는 김보배(연세대)의 덩크슛으로 또다시 달아났다. 1초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문유현 선수가 3점 슛을 쏘아올려 동점을 노렸지만 득점에 실패해 아쉽게 패배했다.



· 축구 | 아쉬운 뒷심, 1:2로 패배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정기전 마지막 경기인 축구 경기가 열렸다. 고려대는 3-4-3, 연세대는 4-4-2 전술을 구사했다. 전반전, 왼발 슈팅 불발로 득점하지 못한 진의준(연세대)이 이승민(연세대)과 함께 세트피스로 득점했다. 고려대는 연세대로 넘어간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남겨놓고 노련한 이지호(체교21)의 어시스트를 받은 유경민(체교21)의 골이 연세대 골망을 흔들어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추가시간이 종료되기 직전, 최지웅(연세대)의 헤딩골로 1:2로 역전돼 아쉽게 패배했다.

사진제공 : 고려대학교 교우회





후배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5년은 고려대학교가 12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정기고연전을 두 학교가 승리를 나눠가진게 아닐까. 2대2 종합성적 무승부로 정기고연전을 마치고 안암동 참살이길은 일찍부터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로 북적였다. 참살이길에서는 후배 내리사랑 뒤풀이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다. 경영대학 교우회는 정기전 마지막 날인 28일(토) 오후 7시에 안암역 인근 쿠마에서 무료주점 행사를 열었다.

이동섭(경영89) 경영대 교우회장,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김동원(경영78) 총장이 경영대 교우회 무료주점 행사가 열린 쿠마에서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김동원 총장은 “두 경영대학이 교육, 연구 등 부문별 경쟁하면서 세계 순위권 경영대학이 됐다. 이것은 라이벌의 힘이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작년까지 2연승 했지만 올해는 내년을 위해 승리를 아꼈다”고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은 “고려대는 저력이 있으니 내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내년 고려대 승리를 확신했다.

재학생들의 연이은 소리통에 이어 외국인 교환학생과 연대생의 소리통도 이번 무료주점 행사에 이색적인 광경이었다. 항상 고대생들만 해왔던 소리통이었지만 이색적인 광경에 모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다.

경기를 응원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던 시간은 잊은 채 고대생, 연대생 구분 없이 어깨동무하며 목터저라 부르는 응원가와 교가가 참살이길을 가득 메웠고 재학생, 교우들은 함께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2024년 하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2024년 10월 21일(월) 오후 6시, 논현동 소재 삼양만나에서 <2024년 하반기 상임이사회>가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렸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여기 계신 임원분들의 성원 덕분에 경영대 교우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마지막 행사인 경영대 교우의 밤을 앞두고 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동섭 회장은 “앞으로 경영대의 글로벌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우리의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며 김언수 신임 경영대학 학장을 소개했다.

김언수(경영81) 학장은 신임 학장단을 소개하며 경영대 현황보고와 함께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했다. 또한 내년 모교와 경영대의 120주년 기념 준비과정을 발표하며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의 상반기 경영대 교우회 운영 보고가 있었으며 2024년 교우의 밤을 준비하는 97학번 동기회장 강 민 교우의 인사말이 있었다. 강 민 회장은 “이번 교우의 밤 행사를 기점으로 고대 97학번은 경영대 졸업생이 끌어가자는 기치 아래 빠르게 반별로 조직했다. 오늘 상임이사회에 반별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반별 대표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야성과 낭만을 발휘해 교우의 밤을 멋지게 꾸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언수 학장, 최철원(무역88) 부회장, 나현승(경영91) 부회장, 97학번 동기회 회장 및 반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2024년 10월 21일(월) 오후 5시 논현동 삼양만나에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 회의>가 열렸다. 올해의 교우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과 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 교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경영대 교우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며 변화와 도전 정신을 일깨우고 나아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젊은 직장인 교우와 재학생들에게 고경인으로 하나가 되어 자긍심을 높일 것이다.

심의위원으로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김평국(경영89) 부회장, 2022년부터 수상자 선정 심의위원을 역

임한 한상일(경영90) 감사, 조성욱(경영92) 감사,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 이번에 수상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한 김언수(경영81) 신임 학장, 나현승(경영91) 신임 부학장, 서희원(경영89) 부회장, 오선근(무역90) 부회장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24 올해의 교우상'수상자를 심의하고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에 오른 7명의 후보를 △기업가 부문 △CEO(전문 경영인) 부문 △공직자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해 심사하여 열정있고 비전이 뚜렷하며 덕망을 겸비한 후보자를 '2024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강 민
97학번 동기회장

뿌듯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학한 것이 벌써 27년 전이네요. 학교에 다니면서 각자가 의미 있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얻은 더 값진 자산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맺어준 인적 네트워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 교우의 밤은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잊고 지냈던 동기, 선후배들과도 절친한 사이가 되어 우리의 인맥을 한층 더 넓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할 지 몰라도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가를 부르고 나면 금방 하나가 됩니다.

97학번 동기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12월에 있을 교우의 밤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행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선배들이 물려준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성우
97학번 A반 대표

어느덧 97학번이 졸업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20여 년의 사회생활 동안에 고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선·후배·동기님들의 조건 없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분야의 일을 담당하더라도 그 분야의 선구자적인 선배들이 계셔서 쉽게 적응하였고 저 또한 후배님들의 연락처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타대학에도 있겠지만 항상 고대만의 이러한 끈끈한 문화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 어린 시선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 경영대 97학번, A반의 왕래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경영대학 교우의 밤'행사는 이러한 아쉬움을 일부나마 씻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왕래가 뜸했던 동기들의 생존 확인과 함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동기들간 지속적인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탕으로 더 많은 교우들이 고대라는 버팀목과 함께 건승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동기들 또한 좋은 추억과 함께 서로 응원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손태무
97학번 B반 대표

“세상의 모든 것은 경영이다. 경영학과로 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지원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며 야성의 들판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돌탑의 온기를 지닌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모교의 교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 시절 동기와 견던 학교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낯설다가도 그곳을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후배들을 보며 젊었을 때의 저와 우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어깨를 걸치며 응원곡을 부르던 동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활활 타올라 불꽃을 번지게 할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 곳에 모여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합시다!



진경언
97학번 C반 대표

97학번들도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도 어언 20년, 먹고 사느라 여전히 정신없긴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시절 안암캠퍼스에서 생활했던 그 동기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동기모임에 나가봤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어렵듯이 기억나는 동기도, 완전 처음 보는듯한 동기도 있었지만, 순간의 어색함은 고대/경영/97이란 공통분모만으로도 금세 사라지더군요.

졸업 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만남을 통해 다시 가까움을 느꼈고, 이 모임이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하던 나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대학교에 관심이 많은 제 아들놈은 해마다 고연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직관은 못하겠지만 안암동과 신촌의 재밌는 현수막을 검색하고 ‘민족의 아리아’를 흥얼거리며 고연전을 즐길 것입니다.

덕분에 저도 그러겠지요. 그 시절 젊은 패기와 열정, 낭만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추진력을 얻고자 합니다.

고대 경영 선배/후배/동기들과 함께 말입니다.



손창호

97학번 D반 대표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난 1997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하나둘씩 동기들을 알아가고 동기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학교생활에 익숙해졌고 저에게 학교는 동기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Family day 행사 연락을 받고 무척 오랜만에 가족들과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새내기 시절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교정을 둘러보면서 그곳에서 예전 친구들과 함께 보낸 추억들,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 켠에 잠들어있던 고대인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고 각자 환경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만 이번 교우의 밤 행사를 계기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고대인의 기억을 다시 깨웁시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는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성장한 밑거름이 고려대학교임을 생각하고 학교와 선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로부터 받은 도움, 함께 나눈 추억을 되새겨 마음의 부담을 떨쳐내고 고대인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교우의 밤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만들고 고대인으로서 다시 뭉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박근형

97학번 E반 대표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붉은색 응원복을 입고 목청껏 고대 응원가를 부르는 후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와이프는 중년남성의 갱년기로 치부하지만, 안암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우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보고싶은 경영대 97학번 E반 동기들아!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졸업한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의 웃음과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서로 얼굴도 보고 그 시절 추억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딱딱하고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닌, 그때처럼 마음 편히 웃고 떠드는 자리이니 꼭 와서 함께 해주길 바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그 시절의 우리로 돌아가봅시다.

제42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금) 18: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Interview

이규원 대표

경영95
이도곰탕 대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부회장

Q1. 교우님과 운영하시는 업체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영학과 95학번 B반이고 95학번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경영대 교우회에서는 부회장이며, 현재 이도곰탕 대표입니다. 저는 요식업을 2009년부터 준비해서 2011년 역삼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키워 지분투자하여 조금씩 지점을 늘려서 지금은 역삼점 본점을 비롯해서 서울역점, 여의도동점, 문정동점 등 8개의 점포를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중이며 1년에 1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이씨,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 손이며 저희 상호인 '이도'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존함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상호가 되었습니다.

Q2. 요식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곰탕’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이스하키와 인라인하키를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어린 나이에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체육회는 57개의 많은 단체가 있고 각 종목별로 사무처장들이 계신데, 그중에 씨름 사무처장께서 소개해주신 지방의 유명한 곰탕, 설렁탕, 해장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점 사장들은 그분의 오랜 지인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맛을 그대로 서울로 가져온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씨름 처장께 유명한 곳 몇 군데 부탁드려서 기술을 전수받고 저만의 방법으로 고기 부위를 추가해서 넣어보고, 어떤 부위는 빼고, 한약재도 넣고 개발한 것이 저만의 브랜드, 이도곰탕이 됐습니다.

Q3.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텐데요.

5~6년 전쯤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품귀현상이 있었어요. 그 시기로부터 3년 전쯤 한우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한우 사육을 늘린 적이 있었는데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가격 폭락을 겪으면서 ‘소값 파동’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 한우 사육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한우만 썼었는데 그 시기에 늘 받아오던 가격으로 한우를 찾는건 어렵게 됐었죠. kg당 받을 수 있는 한우 값이 폭등하면 1톤을 쓸 때 한우 값은 엄청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입산 소고기나 육우도 찾아보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사업 초기에 기술전수 받을 때 도움을 주신 분께서 한우를 못쓰면 차라리 문을 닫으라고 화를 내시고 초심을 말씀하셔서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당분간 음식값을 올리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가게를 운영할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된다면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은 한정돼 있고 고정비 지출과 15명의 직원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해서 저에게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막연한 가운데 사업의 존폐 갈림길에 서서 방황한 지 10개월 후, 한우 사태가 조금씩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면서 자리매김했습니다.

Q4. 본점(역삼동)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외식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데도 지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는데요. 이도곰탕만의 특별한 점을 말씀해주세요.

곰탕은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고 파스타나 브런치같이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나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는 음식이다 보니 오픈해서 빠른 자리매김이 중요했습니다. 곰탕, 설렁탕, 냉면과 같은 한식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 궤도로 들어서면 잘 내려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세가 비싸더라도 곰탕은 매장 회전율이 빠른 메뉴이기 때문에 레드오션으로 보이는 오피



스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곰탕으로 입소문이 났는지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오는 손님들이 생기면서 주말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5년 정도 지나고 서서히 이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쯤 나주곰탕이 유행하면서 저희 매장 근처에 들어섰고 나주곰탕이 아닌 다른 곰탕집도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매장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저라도 이곳이 가능하다면 기존 곰탕집이 있을지라도 매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던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갔는데 저희 매장 근처에 생겼던 곰탕집이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메인도로를 벗어난 골목에 있어 타 곰탕집에 비해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른 유명한 곰탕집인 H업체는 허파, 양과 같은 내장도 취급해서 어르신들께서 선호하신다면, 저희는 깔끔하게 한우 사태만 사용해서 비위가 약하거나 젊은 손님들에게 어필이 됐던게 저희만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Q5. 외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은 꾸준한 맛 관리가 중요해서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 자신의 업무를 본인 일로 생각하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곰탕 맛을 유지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원은 반복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직원이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맛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직원들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오너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중 전직 야구선수가 있는데, 그 직원은 이곳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해외 지사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Q6. 지켜온 경영철학이 있다면?

첫번째로 항상 쓰던 재료인 한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더 남기기 위해 재료를 바꿔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언제나 어느 지점에서나 변치 않는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점별로 직원들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맛 차이가 안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스비용이 덜 나오는 가마솥이나 주방이 덜 덥히는 인덕션용 가마솥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가마솥을 바꿔볼까 고민한 적 있습니

다. 그러나 가마솥을 바꾸게 되면 기존 가마솥으로 우린 국물 맛이 바뀝니다. 불의 양과 온도에 따라 우러나오는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맛은 손님들이 잘 아십니다. 늘 쓰던 가마솥으로 끓여낸 고기 국물이 좋아서 오신 손님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이 좋은 가마솥이 나올지라도 저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료를 추가해서 새로운 메뉴를 내보는데 어떻게냐는 등 무수히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다 거절하고 저희가 개발한 국물 맛을 지켜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처음 시작한 것을 지켜낸 것 자체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서울에서 지방의 맛을 느끼게 하자'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인상 깊었고 이도곰탕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살려 잘 개발해서 서울에서도 그 맛을 잘 구현해 냈습니다.



Q7. 분야가 다른 메뉴를 낸 적 있나요?



처음부터 있었던건 아니었지만 명태회무침이 있습니다. 저희 곰탕은 주로 점심식사 메뉴고 저녁에는 수육밖에 없었는데 단골로 오시는 손님들께서 다른 요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고민해봤는데 홍어삼합이 생각났습니다. 소고기 음식점에 생선이 들어오는게 안맞을수도 있지만 이도곰탕의 경영철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지방의 맛을 서울에서 맛보게 하자는 것과 부합하고 고정관념을 깨보자는 생각으로 속초의 명태회무침과 가자미무침을 시범적으로 6개월간 단골 손님들께 드렸는데 8대 2로 명태회무침을 선호하셔서 메뉴에 넣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손님들께서 곰탕에 명태회무침을 많이 주문하십니다.

Q8.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외식 사업이 침체되는 동안 밀키트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도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어 70~80%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키트 사업이 안정되면 내년 정도 LA나 호주,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K컬처의 열풍이 K푸드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음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저희 곰탕의 맛을 알리고 싶습니다.

Q9.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요식업이 될것인지 프랜차이징을 생각해서 사업 범위를 키울 요식업이 될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시스템 구축의 방향도 달라지겠죠. 프랜차이징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본력도 충분해야 하고 직원을 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운영 식당과는 사업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끼리 운영하기 시작해서 잘되면 범위를 늘려서 프랜차이징으로 키워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해서 프랜차이징으로 키우려다가 잘 안되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가족 운영으로 할건지, 프랜차이징 사업으로 할건지 냉정하게 처음부터 결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두 번째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Q10. 학창시절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위에서 첫번째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이규원 교우

저는 고연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입학했기 때문에 정기고연전에 응원으로 참여하는게 아닌 선수로 뛰어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1학년때 주전선수로 오래 뛰진 못했지만, 정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합숙하면서부터 정기전 끝날때까지 고대인으로서 흔히 겪어보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정기전에 대한 고려대학교 운동선수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목동 아이스링크가 꽉 차는 때는 정기전 하루인데 요즘도 그렇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기전 당일날에는 버스



에서부터 경기장에 도착하여 링크에 오를 때까지 목터저라 응원가를 부르면서 파이팅 넘치게 기합을 모으고 경기장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전을 들으며 시합에 돌입했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때마침 제가 참여했던 아이스하키 경기는 이겼고 그해 정기전 종합 우승의 주인공도 고대였는데 정기전 끝나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절이었습니다.

Q11. 학창 시절의 선수 생활이 지금 사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나요?

운동부에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며 팀 내에서, 선수 사이에도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적응돼있었다보니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 사회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 다. 저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운동이 좋았지만 고된 훈련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운동선수의 이겨야 한다는 ‘악바리 기질’로 근성 있고 집중력 있게 경기를 준비했던 경험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오늘날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 다. 체력이 좋아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없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많은 생각으로 시간 보내지 않고 운동선수 특유의 빠른 행동력으로 도전해서 몰입했던게 통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부 선수로 있다가 지도자 생활과 체육회 행정업무하고 다른 운동부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쌓아온 경험들이 저에게 밑거름이 됐고, 요식업 분야에 진출할 때 도움을 주신 분도 만나게 되어 이도곰탕을 만들게 됐습니 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젊었을 때 운동선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 저에게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Q12.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때는 언제였나요?

고려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잘했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느낍니다. 아이스하키는 캐나다가 종주국이라 2008년쯤 지도자 연수로 1년간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는데 그때 토론토 교우회 선배님들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고대인으로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토론토 교우회 역시 결집력이 강하고 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크니까 고대인이 아니어도 교우회 모임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려대 교우로서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죠. 저는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1등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도 그런 자부심을 느끼도록 도울것이고 교우들끼리 서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일 경제대화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제2회 한·미·일 3국 경제대화’에 참석

2024년 9월 4일(수)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2회 한미일 3국 경제대화(Trilateral Executive Dialogue)네트워킹 만찬 행사가 개최됐다.

‘한미일 3국 경제대화’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지켜 한미일 3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 하자는 취지의 세미나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해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을 진행했고,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미국 증권거래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국제적인 유력 싱크탱크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국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경영89) 현대차그룹 회장, 윤진식(경영67)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섭(경영89, 경영대 교우회장) 일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당파를 막론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를 위해 공화당,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일본측에서는 테츠오 오가와 토요타 북미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덴소코퍼레이션, NEC, NTT 대표 등 주요 인사 55명을 포함한 정재계 리더들, 임원진 100여 명이 이 행사에 동참했다.



게리 피터스와 이동섭 교우회장 |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게리 피터스는 10월경 일진 미시간 노바이기술연구소에 초대됐다.



케이티 브리트와 이동섭 교우회장 | 앨라배마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케이티 브리트는 일진 앨라배마 어번 공장 준공식에 초대됐다.



사우디 사절단 모교 방문

사우디가 찾은 경영대학



김영일



경영 97

경영대학 교우회 상임이사
경제금융인회 회장

2024년 7월 29일(월)부터 31(수)까지 3일 동안 사우디의 마지드 알카사비 상무부 장관과 함께 사우디 경제인연합과 각 지방 상공회의소 회원 59인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경제/산업 관료, 대기업 총수, 은행, 보험, 벤처캐피탈, 법무법인, 컨설팅, 정유사, 건설사, 병원, 상사 NGO 등) 즉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인사들이 협업할 수 있는 한국 파트너를 만나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한했다.

하지만 그 준비 작업은 무척 어려웠다. 행사를 준비할 시간은 10일.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주한 사우디 상공회의소에서 29일 B2B미팅에 참석할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달라고 다급한 요청을 해온 것이다. 교우회장이신 이동섭 무역협회 부회장님께 급보를 전하고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민경석 사무처장의 도움으로 교우 기업인들도 초대하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경제금융인회 (KEFA) 회장으로 봉사 중이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희망하는 유수 기업인들과 사모펀드, 언론사 등을 초대하였고 40여 대표들이 행사에 동참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아니었다면 휴가철에, 그것도 짧은 준비 기간에 소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관계



자들은 칭찬했다. 29일 B2B 미팅에 이어 30일에는 정부인 사들도 참석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담 시간에 고려대학교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속가능 협력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bottom-up** 전략을 위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추천했다. **Aramco**가 고려대학교와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예시를 소개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최고의 경영대학은 고려대학교다”라고 소개를 했다. 이에 대한 호응일까, 고려대학교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었다. 마지막 31일은 **Sight Tour**, 즉 한국의 기업 또는 산업 현장을 답사하는 일정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다수 손님들은 이미 익숙한 현장보다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KUBS**에는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있다!” 신속하게 김상용 학장님과 권성우 부학장님께 연락을 취하고 멋진 **Saudi-Korea University**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이르렀다.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과 일진글로벌

이동섭 회장의 후원으로 왕성한 창업지원을 하고있는 모교 경영대학에 사우디 손님들은 크게 만족하였고 투자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추석 기간에 사우디 초청까지 약속받은 스타트업도 있다. 호상이 발간된 시점에는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유추해 본다. 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의 웅장하고 세련된 시설에 감탄했으며 참가자 중 가까운 미래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우디 경제인 연합회 회장 파하드 빈사야드 알알란 회장 [사우디 최초 현대차 수입상사]께서 “세계적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임이 틀림없다”라고 칭찬해 주었다. 마무리는 박물관에서 고려대학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군들을 배출해 낸 역사를 설명했고 아름다운 교정을 둘러본 다음 이별을 했다.

사우디와 한국의 행사를 사우디와 **Korea University** 행사로 가능케 해 주신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님, 경제인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에서 안식년 중 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권성우 부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영대를 위하여 고고고!

감 / 사 / 편 / 지



Razan Farhan Alaqil

Partner & Chief Advocacy Officer
Mukatafa Consulting Company

Thank you letter from Saudi Arabia
During my visit to the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s part of the Saudi delegation, I had the opportunity to gai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chool's rich history and its esteemed position in the academic world. The school's emphasis on rigorous coursework, combined with its strong foundation in innovative business practices, reflects its commitment to developing future leaders. The faculty's dedication to research excellence and the cultivation of a global perspective were evident, making it a significant center for business education in Asia.

Moreover, I was impressed by the pride shown by the current students and alumni, who spoke passionately about their experiences and the impact of their education on their professional journeys. Their stories highlighted not only the academic rigor of the program but also the invaluable network and community they gained through their time at the school. This visit was an insightful experience, providing an inspiring glimpse into how the Kore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nurtures talent and prepares students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the global business landscape.

■ 교우동정



승명호 (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2024년 10월 25일
승명호 교우가
서울시교향악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박현주 (경영78)

2024년 7월 3일 박현주
교우가 국제경영학회
연례학회에서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박상신 (경영81)

2024년 8월 14일
박상신 교우가
DL건설 DLO앤씨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손재일 (경영84)

2024년 10월 22일
손재일 교우가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동한 (경영85)

2024년 7월 4일
이동한 교우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임명됐다.



양동훈 (경영86)

2024년 8월 26일
양동훈 교우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장영현 (경영86)

2024년 7월 18일
장영현 교우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국무총리 산하)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정철근 (경영86)

2024년 6월 24일
정철근 교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에
선출됐다.



김완섭 (경영87)

2024년 7월 26일
김완섭 교우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박재형 (경영87)

2024년 8월 27일
박재형 교우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정재연 (경영87)

2024년 7월 11일
정재연 교우가
강원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재규 (무역90)

2024년 8월 29일
이재규 교우가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황정일 (경영90)

2024년 7월 24일
황정일 교우가
신용보증기금
원주지점장으로 취임했다.



한명진 (경영91)

2024년 8월 14일에
한명진 교우가
SK스퀘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김재형 (경영92)

2024년 7월 3일
김재형 교우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으로 발령됐다.



김형곤 (경영93)

2024년 7월 1일
김형곤 교우가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대표파트너로 승진했다.



박 현 (무역93)

2024년 9월 20일
박 현 교우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범구 (경영96)

2024년 9월 26일
김범구 교우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승진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박점열(경영81) 2024년 9월 29일 아들 준형 군

박창수(경영85) 2024년 10월 5일 장녀 주영 양

김정환(경영03, C반) 2024년 10월 12일 본인 결혼

도우성(경영08) 2024년 8월 24일 본인 결혼

임윤현(경영11) 2024년 11월 9일 본인 결혼

박용희(경영13) 2024년 11월 23일 본인 결혼

홍주빈(경영13) 2024년 11월 23일 본인 결혼

이진규(경영14) 2024년 8월 31일 본인 결혼

교우동정

부부 경제학 박사,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로 동시 임용 올해 10월부터 첫 강의 시작



이한백(경영07)



방민지(경영08)

고려대 경영학과 선
후배인 부부 경제학
박사가 영국의 세계
적인 명문 케임브릿
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의 경
제학 교수로 동시에 임용됐다. 남편인 이한백 교수는 07
학번이고 부인인 방민지 교수는 08학번이다. 고려대학
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유학
하여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섐페인 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한백 교수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고, 방민지 교수는 홍콩성시대학교(The
City University of Hongkong)에서 2년간 경제학 교수로
근무했다.

이한백 교수는 거시경제, 경기변동, 재무경제학, 방민지
교수는 미시경제, 노동경제학 분야를 주로 연구할 계획
이다. 그동안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에는 장하준씨
가 한국인 1호 교수로 재직했고, 이제 두 사람이 한국인
2호, 3호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한
백 교수의 아버지 이상현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 79학
번으로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어머니는 고려
대 영문학과 83학번으로 다국어 통번역회사 (주)엔코라인
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교수동정



김언수 (경영81)

2024년 9월 1일
모교 김언수 교수가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나현승 (경영91)

2024년 9월 1일
모교 나현승 교수가
경영대학 교무부학장으로
취임했다.



류강석 (서울대 경영86)

2024년 9월 1일
모교 류강석 교수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남대일 (독문92)

2024년 9월 1일
모교 남대일 교수가
경영대학 연구부학장
으로 취임했다.



김병조 (서강대 수학93)

2024년 9월 1일
모교 김병조 교수가
경영대학 기획부학장으로
취임했다.



김영준 (경영87)

2024년 9월 24일 모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영준 교수가
기술경영 인력양성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득주(경영55) 2024년 10월 8일 본인상
이기현(경영55) 2024년 8월 8일 부인상
구중서(상61) 2024년 9월 23일 본인상
민병호(상61) 2024년 9월 23일 본인상
이재주(상61) 2024년 7월 23일 본인상
이정남(상61) 2024년 9월 8일 본인상

정동규(상61) 2024년 7월 26일 본인상
이영식(경영69) 2024년 10월 10일 아들상
권홍국(경영79) 2024년 6월 23일 모친상
박천웅(경영79) 2024년 8월 11일 빙부상
안병덕(경영79) 2024년 9월 19일 빙모상
강교진(경영86) 2024년 10월 10일 본인상

이병훈(경영86) 2024년 7월 12일 본인상
강기철(경영89) 2024년 8월 8일 부친상
한규제(경영89) 2024년 8월 11일 모친상
장우경(경영94) 2024년 7월 8일 부친상
최성훈(경영95) 2024년 8월 3일 부친상



(주)ST인터내셔널,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 기금 10억 원 쾌척

(오른쪽에서 두번째) 유상덕 회장

2024년 7월 2일(화) (주)ST인터내셔널(회장=유상덕, 경영 79)이 후배들을 위해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 기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유상덕 회장은 (주)ST인터내셔널 회사의 이름으로 꾸준히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해오고 있다. 2004년 경영대학 프로그램 지원 기부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 기금, 경영대학 장학금 등 다양한 용도로 기부하며 학교 곳곳의 사업을 후원해 왔다.

이번 기부식에서 유상덕 (주)ST인터내셔널 회장은 “항상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1989년 송은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미술작가를 양성하며 예

술 분야에 공헌해 왔다”라며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가 자연계 중앙광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공계 분야의 성장과 발전은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이 태어날 자연계 중앙광장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2025년 5월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인재들의 창조와 혁신의 터전이 될 고려대 자연계 중앙광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7월 3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허천구 前 코삭 회장, '운동장학기금' 4억 5천만 원 쾌척

(오른쪽에서 세번째) 허천구 회장

2024년 9월 12일(목) '운동장학기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는 허천구(상59) 前 코삭 회장이 또 한번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쾌척했다.

이번에 허천구 회장이 기부한 4억 5천만 원은 운동장학기금, 경영대 운동장학기금, 운동회 기금으로 사용된다. 운동장학기금과 경영대 운동장학기금은 자격 내에서 적합한 학생들에게 학기당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기금으로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생 인원을 확대해 현재는 운동장학기금 6명, 경영대 운동장학기금 6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고려대에 장학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하며 '운동

장학기금(舊, 허천구 장학기금)'을 만든 허천구 회장은 다음 해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허 회장의 호를 딴 장학생 모임 '운동회'를 만들었다. 이후 허천구 회장은 '운동회 기금'까지 별도로 조성해 학기에 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며 장학생들의 상호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진 장학생(미디어학부)은 "운동 장학생이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회장님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인재가 되고 싶다"라며 "총무를 맡게 된 만큼 책임감 있는 운동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월 13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글의 고향



황 인 강

상61·ROTC 3기·수필가

50여 년 전의 글이 얼마나 충격을 주어 길래 그토록 간직하며 살았을까. 간혹 글의 출처가 궁금하다가도 풀길이 없어 그냥 지내왔다. 답답하기야 말해 무엇 하랴. 직장인으로 지켜야 할 지향점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던가. 언제인가는 글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며 지내왔다.

프로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이였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으로 프로란 말에 가슴이 뛰었다. 당시에 프로란 단어는 생소한 용어이고 아마추어란 말도 흔한 단어도 아니었던 시대였다. 프로라는 오늘날의 개념과도 다른 차원의 전문분야수준의 대명사다. 갓 시작한 직장인의 자세로 프로페셔널한 회사원이 되고자 하는 글이었다.

프로는 본인의 사생활보다 회사 일을 제일로 삼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신이 일하는 것에 긍지를, 자신의 능력의 110% 이상의 것에 도전을 해야 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어떤 일이든 미리 예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표를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엄격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미래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일하는 사람, 자신이 일한 성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일한 성과로 높은 소득을 손에 넣는 사람, 자신의 일에 지나친 두려움 소홀함도 없는 사람, 능력향상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열 가지이다. 이 자랑스러운 열 가지를 지키고 나갈 때 성공이 따라 올 것이란 확신이 섰다. 통칭하여 10훈'이라는 계명으로 1년부터 10까지 목표를 제시했다.

동서고금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평범한 목표인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든 전문가 수준이 되어 실력을 쌓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 어찌 10훈뿐이겠는가. 이 글이 왜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까. 무호3기모임 때에 리더스 월드라고 하는 알오티시안(ROTCIAN)에 관한 책을 선물 받았다. 겉표지에 자상한 미남의 건장한 사나이가 온화한 자세로 알려진 왕회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학우였다. 그의 사업 성공과 인생 여정의 단면을 정리 기사화한 계간 책이다.

50여 년 전, 신입사원 시절 어느 책에서 실천해야 할 평생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발췌했다. 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제목은 “프로 사원 10훈”이라는 글이다. 열 가지 항목은 회사원으로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행동 지침서가 아닌가. 타이핑해서 코팅까지 하여 늘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려 노력해왔다. 직장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나에게 그 글이 나를 흥분하게 했다. 잊었던 그 글의 출처를 오늘 배부해준 <Leaders' world> 책을 흥미 있게 읽던 중 영감이 떠올랐다.

‘이 책이었구나’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쁜 일인가. 그동안 출처를 몰라 답답했었는데 우연히 받은 책에서 알게 된 것이 혹여 신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다. 참은 보람이 있어 순간 기쁘기 이를 데 없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 책을 접하면서 ‘10훈의 출처’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최전방의 소대장 근무를 끝으로 사회에 나와 2개월간 취업 준비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응시하여 입사하게 된 신출내기 사원이었다.

사회경험이 미숙한 나에게 위의 글이 나를 용솟음치게 했던 것이다. 프로란 회사원으로만이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지위에 있든 프로의 정신을 갖고 일한다면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젊은 청년에게 용기와 신념 그리고 힘을 준 것에 자신감이 싹텄다. 그 내용은 50여 년 전의 실천사항이다. 그 시대에 오늘날의 직장인의 윤리관과 목표의식이 차이가 있는 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인으로서 처신, 마음가짐, 일하는 방식은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정신과 그 세계는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이치와 논리가 적용한다 할 수 있으리라. 누구든 어느 처지에 있든 직업과 삶에 임하는 경전이지 않았다. 일을 손에서 놓는 그날까지 프로로서의 10훈을 지향하는 자세로 행한다면 자신의 목표치에 더 빨리 도달하는 기쁨을 맛보지 않을 것인가.

골프와 병치레



박 찬 성
경 영 68 · 수필가

요즘은 한 달에 그저 한두 번 골프를 즐기는 편인 백수에게 지난 주일은 과분하게도 한 주에만 두 번의 골프 복이 몰려 있었다. 흔한 일은 아니다.

월요일은 옛 직장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있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 상태가 이상했다. 갑자기 허리가 뻐근해지며 일어나 앉기도 버거웠다. 전에도 가끔 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지만 일어나 움직이면 금방 정상을 회복했다. 그런데 이번 것은 확실히 전과는 좀 다른 듯했다. 임시 요법으로 침대에 누워서 십여 분간 전기 마사지를 했더니 조금 움직일 만했다.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가 라이드를 해줘서 편히 곤지암에 있는 중부CC로 향했다.

곧 뽕찜아지려니 하는 기대와 달리 티오프 시간이 되어도 허리의 뻐근함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비상약품으로 가지고 다니던 소염진통제 한 알을 골프백에서 꺼내어 복용하고 티박스에 올랐다. 그날은 친구들 중 드물게 현역으로 김앤장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이 아무개 박사와 오랜만에 한 조가 되어 한번 겨루기로 한 날이었는데 기대가 빗나갔다. 공에는 큰재주가 없는 사람이 건강 문제까지 생겼으니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허리를 못 쓰니 빈타로 일관하다가 진통 효과가 나타난 후반에는 겨우 팀의 보조를 맞출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튿날 오전 내내 침대에서 쉬다가 오후에 일어나보니 여전히 허리가 뻐근했다. 당장 금요일로

예정된 대학친구들과의 골프가 걱정거리였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 바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근자에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척추관협착증인가 하는 놈이 드디어 나에게도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 슬그머니 걱정되었다. 한참을 대기하다가 집사람과 함께 원장실로 불러들어갔다.

엑스레이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원장 선생 왈, “이런 상태로 골프를 치셨다고요?” 하며 눈이 휘둥그레지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의 눈길은 자동 반사적으로 집사람의 얼굴로 향하고 있었다.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건강 문제로 좋아하던 골프를 수년 전 그만두고 나서부터 부쩍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민감하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부부동반 골프를 즐겼는데 요즘은 혼자 골프백을 들고 집을 나설 때마다 은근히 미안한 면이 없지 않은 터였기 때문이다. 원장에게 말에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눈짓을 여러 번 했지만 그는 감을 잡지 못한 채 설명을 이어갔다.

“3번과 4번의 요추가 거의 붙어 있지요, 보시듯이? 척추관 협착이 의심되고, 또 여기 거뭇거뭇한 부분 보이시죠?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서 MRI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순식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집중 십자포화를 받고 파김치가 되어 나오려는데 집사람이 원장



선생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이번 금요일에도 골프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 나가도 괜찮을까요?” 그제야 원장 선생이 나의 눈치를 살피더니, “골프는 일단 약속했으면 나가야겠죠?” 그는 겸연쩍은 듯 씨익 웃고 있었다.

처방약을 먹고 나니 다음날 컨디션이 다소 회복되었다. 그러나 척추관협착증보다 그 ‘거뿔거뿔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욱 나를 짓눌렀다. 혹시?...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허리 문제로 오래 고생하다 최근에 수술 받은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일단 종합병원 몇 곳으로부터 복수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거라는 답변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사람을 태우고 청담동에 소재한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찾아갔다. 동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하고 진료실 앞에서 대기했다. 만약에 급히 입원해서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면 어떡한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차에 나의 순서가 되었다. 아내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전문의가 내가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의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마치 대입 수험생처럼 초조했다. 의사의 첫마디가 너무나 의외였다. “별 거 아닌데요?” 나의 귀를 의심했다. 똑같은 사진의 판독 결과가 어찌 그리 다를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어진 의사의 말은 우리 나이에는 조금

무리를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였다.

그리고 보니 최근 한두 달 원고 청탁 기일을 맞추느라 밤늦도록 책상에 붙어 앉아 무리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이 거뿔한 부분은요?”하고 되물었다. “어른들께 흔히 관찰되는 부분이지만 그리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이제야 정말 창공을 날 듯 기분이 흥분해졌다.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오는데 집사람이 또 의사 선생을 붙들고 남편의 골프 문제를 묻고 있었다. 그는 센스있게 나의 우려를 한마디로 잠재워 주었다. “너무 자주만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동네병원 원장의 겁박(?)으로 오만 가지 상상의 나래 펴며 기가 죽었던 힘든 날이었지만 원장이 그리 밉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예전 한국산업은행 재직 시절 정기검진에서 ‘위암 오진’을 받았던 덕분에 그 이후 오늘까지 매년 위내경 검사를 빼먹지 않고 건강관리를 착실히 하게 되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으니 동네 원장이 고맙기까지 하다.

금요일은 대학동기들과 골프 하는 날이었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감곡CC로 차를 달리는 기분은 상쾌했다. 컨디션도 좋았다. 친구들과 아침식사 자리에서 모두들 평소 허리 건강에 신경 쓸 것을 점잖게 훈수하고 나서 골프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집을 나서기 전 아직 기상하지 않은 아내 머리맡에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라는 메모지를 넣은 소액 봉투 하나를 두고 나왔음은 물론이다.

K-컬처, 최후의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와 수교 1등 공신



이경순

경영61·계간<글의 세계> 발행/편집인

쿠바 길거리를 걷다보면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에서도 한류의 영향을 놀라워하며 이를 취재하는 등 쿠바에서 부는 한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네요.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쿠바가 미국 문화는 꺼리면서 왜 한국 문화에는 푹 빠져 있는지 쿠바와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한국 문화의 엄청난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분주하게 카메라를 세팅하며 촬영을 준비하는 스태프들, 그 중심에는 대형(大型)을 갖춘 댄서들이 있습니다. ‘Q’소리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고 음악에 맞춰 화려한 동작이 이어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K팝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같지만,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쿠바의 10대 20대 청년들입니다.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커버(cover: 특정 가수의 노래나 댄스 퍼포먼스를 따라 하는 행위)댄스를 통해 K팝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진 쿠바의 젊은이들까지 K-POP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인들은 미국 바로 옆에 위치한 쿠바에서 K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와 POP 등 세계적인 문화대국 미국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왔던 나라가 바로 쿠바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 문화의 저력이 무섭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나?”라는 등 감탄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함께 최후의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던 쿠바는 현재 한류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많은 쿠바인들이 K-POP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바와 한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것은 바로 올해 초의 일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만에 한류가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일까요? 사실 정식 수교 이전부터 쿠바에는 한국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가 김수현이 잘 생겼다고 이야기하거나 15세 꼬마들이 길거리에서 BTS의 춤을 따라 하고있는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는 소식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HD현대중공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외교 관계가 없던 쿠바에 이동식 발전설비(Packaged Power Station·PPS)를 대규모 납품하며 양국의 외교적 경제적 교류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습니다. PPS는 가로세로 12미터짜리 컨테이너에 엔진, 발전기, 보조기기 등을 탑재해 운송과 현장 설치 작업을 간편하게 하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쿠바 정부는 HD현대중공업의 PPS를 통해 전력난을 상당 부분 해결했고, 감사의 표시로 자국 10페소 지폐에 이 발전설비를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결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된 국가입니다.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로 유명한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는 엄격하게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며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재즈와 블루스 등 독특한 그루브(groove)를 바탕으로 한 쿠바의 문화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동아시아까지 퍼져나갔으며 쿠바인들의 음악이 한때 세계적으로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해 쿠바로 여행을 떠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에 배타적이고 문화적으로도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K팝이 쿠바에서 퍼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한류의 힘이었습니다. 쿠바 한류의 시작은 드라마였다고 하는데 2013년 쿠바 공영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 방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MBC의 ‘내조의 여왕’이었으며 이후 ‘아가씨를 부탁해’와 ‘시크릿 가든’등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이 줄줄이 방영되었는데 처음에는 쿠바인들도 생소한 배경에 동양인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두터운 문화의 벽과 사상의 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팬들이 소수에서 점점 다수로 변했고 이는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전 드라마가 아닌 최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배우를 직접 만나고 K-POP 앨범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바와 한국은 정식 수교국가가 아니었기에 한국 콘텐츠를 들여올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심(paensim)은 국경을 뛰어넘는 법이라고 했나요? 미국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면서 쿠바의 한류 커뮤니티는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 ‘ArtCor’가 이렇게 탄생했는데 소규모로 시작했던 팬 커뮤니티가 쿠바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BTS였다고 합니다. ‘Love Yourself’와 BTS의 앨범과 퍼포먼스의 화려한 춤과 노래, 한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는 한국어를 모르는 쿠바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BTS를 계기로 쿠바내 K팝 팬덤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쿠바인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걸 넘어서 K-POP 가수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래를 커버하는 그룹들이 등장했고, K-POP 뮤직비디오를 자체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MZ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으며 한국 문화는 쿠바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미국 문화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세계를 휩쓴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미 정서가 강한 쿠바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쿠바인들에게 한국문화는 미국문화와 상관없이 동양에서 넘어온 완벽한 대체재(代替財)였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미국보다 수천 km떨어진 한국의 문화가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쿠바 정부도 한국과의 교류를 고민하기 시작했은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에만 집중하던 쿠바는 한국과의 교류를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한국-쿠바 정식수교는 이러한 정서적 토대가 기반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는 한국과의 수교를 오랫동안 거부해왔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쿠바 정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쿠바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했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한 쿠바 정부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위기극복, 물가안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쿠바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쿠바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어진 데다 수교를 맺어달라는 내부 압력(ArtCor)도 있었기에 쿠바는 한국과의 수교를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쿠바에 있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쿠바는 다량의 니켈과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면 쿠바에게도 손해가 아닌 결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수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도 수교를 맺음으로써 외부 세계에 쿠바가 개방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한 쿠바는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며 이를 외부에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국조차 몰랐던 일로 발표 후에야 미국이 알게 되었다 합니다. 모든 과정을 비밀로 유지한 것은 북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쿠바가 한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아 왔기 때문에 쿠바는 북한의 방해로 피하기 위해 수교를 신속하게 체결했습니다. 한국-쿠바 수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역시 북한이었다고 하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수면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었는지 북한 수뇌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피델 카스트로와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던 쿠바가 한순간에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북한 수뇌부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김정일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대부분의 인사를 교체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한국-쿠바 수교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한류 팬들에게는 뭇 듯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교 덕분에 K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쿠바 수도 아바나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쿠바 코리아 투게더’동호회를 운영하며 K팝 트렌드를 이끌었던 팬들은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아이돌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정부도 즉시 이들을 위해 본격적인 한국 창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이 쿠바에 세워지면 쿠바인들도 보다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교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쿠바 이민 한인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마침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쿠바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쿠바 한인의 역사는 과거 멕시코로 향했던 한인 이민자 300여 명이 더 나은 삶을 위해 1921년 3월 25일 쿠바의 마타니 항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주도하며 쿠바 사회에서 영향력 미친 ‘헤로니모 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쿠바 한인 사회는 물론 쿠바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한국인들의 인권과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았습니다. 쿠바 사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았던 이유도 ‘헤로니모 임’을 포함한 1세대 한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그 노력 덕분에 쿠바인들도 한인 이주민들을 쿠바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끊겼기에 한인들은 조국과의 교류에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쿠바 교류가 성사되며 비로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쿠바 땅을 밟았던 한인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후손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쿠바 교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교류였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쿠바를 바꾸고 더 나아가 세계 역사를 뒤흔든 대한민국, 그런데 이런 한국 문화의 힘을 부러워하는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한국을 마치 자기네들의 속국인 것 마냥 호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 중국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전 세계인을 분노케 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이 6.25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이라는 영웅주의로 미화시키는 것에 참전국 전체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나섰고,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기리는 것과 똑같다며 중국 역사 왜곡에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가 커져간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보도가 되며 쿠바인들에게 한국 문화는 미국문화와 상관없이 동양에서 넘어온 완벽한 대체재(代替財)로서 쿠바의 K컬처가 중남미를 휩쓸며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 나갈수록 중국의 역사왜곡 주장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가을밤

김진하

상66·시인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어느새 여름이 가 버린 것을 깨닫는다

나뭇잎이 훑날리는 거리를 걸으면
보도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집집마다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며
별들이 움직이는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 냄새
햇살의 빛깔
풀섶에 늦게 피어있는 작은 꽃들
사르르 낙엽 떨어지는 소리들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준다

나뭇잎에 단풍이 들고
숲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서히 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음을 가다듬고
나무와 바위에게
다소곳이 절을 하고싶은 가을밤이다.



56 회장 이연상 / 부회장 변동수

막수회 (경영56동기회 월례회) ●●●

지난 6월 호상 121호에 소식을 전한 이래 오늘까지 막수회는 네 번 (6월 28일, 7월 31일, 8월 28일, 9월 25일)의 모임을 가졌다.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더웠던 폭염 탓으로 6, 7, 8월 모임에는 연인원 17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날씨가 선선해진 9월 모임에는 10명이나 참석해서 2022년 5월, 2023년 6월에 이어 2020년대 들어서 세 번째 10명의 인원이 모이는 기록을 세웠다. 바쁘고 참석하기 힘든 여건에서도 참석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최종해 동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찬조 했지만, 이달에도 10명이 참석해서 꽤 많은 회식비를 전액 찬조함으로써 막수회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다른 동기들도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기 바란다.



막수회

지난 4개월간에는 특별한 소식은 없으나 수년전부터 이남주 동기가 주관하여 개설한 56동기회의 카카오톡 대화방(막수회)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건강, 교양, 오락,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막수회 회원들 간의 전파를 통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 시켜줘서 우리 동기들 모두는 이남주 동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아직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은 일부 동기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며 동기들의 대화방에 좋은 정보와 소식을 많이 올려주기 바란다.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은데다 일부 동기들은 벌써 9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차츰 그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회원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며 더 오랜 기간 동기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다음 달 모임에도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61 회장 이경순 / 총무 이채영

도암회(여의도 모임) ●●●

졸업후 여의도에 직장을 둔 동기들이 매월 셋째 금요일 63빌딩 옆 리버티빌딩 2층 하반에서 오후 1시에 김 실 회장 중심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만나고 있으며, 퇴직 후 회원들의 거주지가 지방으로 많이 이주함에 따라 현재는 10여 명 내외가 함께하고 있다. 당일 오찬비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7월 19일 만남 후 기록적인 무더위와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 모임은 10월 18일에 갖기로 했다.



도암회

초암회(서초동 모임) ●●●

서초동 지역 동기들이 지하철 9호선 반포역 인근 산들해에서 홀수 달 셋째 화요일에 금년도 회장 정기성 외에 김성희, 박성현, 성규진, 성영일, 안희민, 양재광, 이복성, 전준옥, 정의철, 조일규,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 15명이 만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연초에 연회비를 걷어 오찬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7월 16일, 9월 10일 모임에 이어 다음 모임은 11월 19일에 같은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초암회

삼목회(걷기 모임) ●●●

유례없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7, 8월은 회원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쉬기로 함에 따라, 9월 추석 연휴를 피해 3개월만인 9월 26일에 우면산 무장애숲길을 걷기로 했으나 당일 강우 예보로 6명의 회원만이 참가하여 남부터미널역에서 사당동 로타리까지 무장애숲길을 걷고, 국립국악원부터는 공사중이어서 도로변을 따라 2시간 반을 걸었다. 이날 오찬은 사당역 4번 출구 앞 나오리주물럭에서 하이볼을 반주 삼아 오리 주물럭으로 허기를 달렸으며, 발목 부상 후 오랜만에 나온 최 섭 회원이 오찬을 찬조했다. 박인우 회장 외에 김경학, 김근도, 김병수, 김순구, 김승헌, 김택원, 민병직, 박무용, 박광옥, 박수죽, 박진자, 성영일, 윤종완, 이근태, 이경순, 이근창, 이 완, 이원태, 이채영, 전준옥, 정무광, 정시균, 정홍진, 정희진, 최창규, 최민자, 하준기 등의 회원 중 매월 10명 내외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9월 23일 작고한 민병훈 회원의 빈소인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문상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다음 모임은 10월 17일에 갖기로 했다.



삼목회

이월회(양재동 모임) ●●●

작수달 둘째 월요일 낮 12시 30분 양재역 인근 음식점에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8월 12일에 이어 10월 14일에도 양재역 1번 출구 앞 왕삼돈에서 만나기로 했다. 성영일 회장 외에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승헌, 김우찬, 김지균, 김충홍, 박인우, 양재광,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창웅, 이채영, 이준원, 정시균, 정희진, 채갑병 등 19명의 회원들 중 10명 내외가 참석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이월회

광암회(강남지역 모임) ●●●

홀수달 둘째 화요일 12시 교대역 11번 출구 앞 참배나무골에서 인삼주를 반주 삼아 훈제오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는 창립 34년이 된 모임이다. 7월 9일 모임에는 15명이 참석하여 동기회장 이경순이 찬조하는 오찬을 함께하며 3개월 만의 만남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9월 10일 모임에는 1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나온 민병직 회원이 제공한 오찬을 함께한 후, 9월 8일 작고한 이정남 회원의 서울성모병원 빈소를 단체로 문상하였고, 9월 23일에는 구중서 회원이 타계하여 구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채영 회장 외에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순구, 김승헌, 김우찬, 김윤장, 김지균, 민병직, 박광옥, 박수죽, 박식의, 박인우, 성영일, 신남용, 양재광, 왕규철, 이근태, 이근창, 이경순, 이병우, 이준웅, 이창웅, 장경작, 정시균, 정무광,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의 회원 중 매회 10~15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11월 12일 갖기로 했다.



청춘대학(실버학교) ●●●

청춘대학은 매월 다음 달 모임 날짜를 정하여 만나서 맛난 음식을 즐긴 후,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근황을 나누고 은퇴 후의 행복을 추구하며 맛집과 명승지 순례와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임이다.

지난 5월 모임에서 백두산 북파 등정이 무산되어 일본 큐슈여행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은 일본통인 이원태 회원의 계획에 따라 6월 16일부터 5박6일로 일정을 잡고, 건강상 이유로 못가는 회원을 제외한 김순구, 이원태, 박진자, 최민자, 이채영 일행 5명이 후쿠오카로 이동하여 베이스캠프인 하카타역 인근 라이푸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일정에 따라 스이젠지, 유후인, 벳부 온천, 구마모토성 등을 관광했다. 이중 구마모토성은 일본 3대 명성 중의 하나로 임진왜란 때 함경도지역을 점령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천수각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경제 침체로 성곽 곳곳이 훼손되어 보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력 있는 성주를 모신다는 안내판이 붙어있었다. 일정이 짧아 아소산 화산을 구경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공항 인근의 만엽탕에서 온천욕으로 노독을 풀고 귀국길에 올랐다.

9월 20일(금) 12시 30분 역삼역 5번 출구 앞 고향 마을에서 김순구, 박인우, 박진자, 이원태, 정홍진, 이채영, 최민자 등 7명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무더위를 견뎌낸 서로의 근황과 건강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오찬비는 이 집 단골인 김순구 회원이 부담했다.



큐슈여행

62 회장 정병화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학번동기회 가을 나들이 ●●●

10월 18일(금), 따사로운 햇살아래 향기로운 가을빛 향연이 전하는 여유로움을 즐기자 경영대학 62학번 동기들 및 사모님 삼십여분을 모시고 오전 8시 30분에 양재역 예술회관 앞에서 출발했다. 보령 상화원에 도착했는데, 가을비 답지 않은 폭우가 쏟아졌다.

상화원 회랑길 2km를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만끽하며 산책하고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한우마을로 이동해 한우로 점심을 즐기면서 환담을 나눴다. 점심식사 후, 예당호 출렁다리를 산책하려고 했으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산책도 못하고 16시 30분쯤 서울을 향해 출발, 양재역에서 저녁 먹고 모임을 마치려 했지만, 귀경길 정체로 양재역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저녁을 생략한 채 섭섭한 마음으로 가을 나들이를 마감했다.



가을 나들이

63 회장 김윤호 / 감사 이재길

2024년 동기회 정기총회 (회장 : 송영직) ●●●

- 6월 3일 선정릉역 부근 수담한정식 집에서 45명이 참석하여 개최
- 7년 전 개정된 회칙대로 단독 임원인 1년간 봉사할 회장으로 김윤호 동기를 선출
- 지난 1년간 유명을 달리한 6명의 동기들을 애도 (김종욱, 김창우, 서원석, 안인혁, 옥규석, 하원한)



동기회 정기총회

기타 동기회 모임 ●●●

- 등산회 (회장 : 윤익순)
- 점점 나이가 들면서 참여 인원이 줄고 있으나 매월 둘째 목요일에 빠짐없이 모이는 중
- 매월 10명 내외의 회원이 참여하여 주로 가까운 청계산 옥녀봉까지 오르며, 가끔은 멀리 가기도 함
- 바둑모임 (회장 : 최무길)
- 매월 둘째 토요일 양재동 소재 기원에서 모임 참여 인원은 6~8명 정도
- 골프모임 (회장 : 정익기)
- 매월 셋째 화요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벨라스톤CC에서 모임 참여 인원은 3~4팀 정도



등산회 모임

64 회장 안덕수 / 사무총장·재무총장 정원교

등산회 6월 데크길 걷기 (등산회장 : 신준철,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4년 6월 29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고충호, 권영기, 김귀분, 김동훈, 이하자, 김상규, 김윤호, 김원태, 김현희, 신준철,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정원교, 지동직, 홍현목

6월 산행은 권영기, 김귀분 부부와 김동훈, 이하자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참외와 사과를 깎아와 동기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데크길이라서 웬만한 사람들도 걷기에 큰 무리가 없어서 건강이 회복된 정원교 총장도 참석했고 강동식 왕회장은 본격적인 산행



등산회 6월 데크길 걷기



을 위해 멋진 가방을 장만해서 신고식으로 점심을 산 것은 예전의 동기회에 베풀기의 새로운 시작(?)인지 아무튼 등산회에서는 3월 최양섭, 4월 김윤희, 5월 이석훈에 이어 점심 사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백수회 우면산 둘레길 걷기(백수회장: 지동직, 등산대장: 이경희) ●●●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 참가자 : 김광수,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백수회 임시 등산대장 유명식이 소집 통보, 이경희 대장이 건강 문제로 임무를 맡기고 결석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해서 기계유씨 종친 유성준, 연안이씨 종친 이석훈, 이용규 등산회장, 신준철과 김광수, 박채길, 지동직 등 8명이 비가 와도 삼계탕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우면산 둘레길을 돌아 쉼터에서 두 번 쉬고 커피, 곱차를 마시며 우리끼리 별의별 잡담을 하다보면 끊임없이 웃음보가 터져 나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유명식 임시 대장 취임 턱으로 낸 영계백숙, 삼계탕을 대접받고 막걸리 한잔에 불과해진 얼굴들로 삼복더위를 이겨냈다.



백수회 우면산 둘레길 걷기

백수회 북한산 자락길 산행 ●●●

- 일시 : 2024년 9월 7일(수)
- 참가자 : 김광수,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몇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던 박명익이 산행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월차까지 쓰고 참석하는 유명식, 불편하다는 지동직 회장 등 너도나도 박명익 환영 산행을 신청하여 11명의 대부가 산행했다. 팔각정을 시작으로 북한산 자락길을 올라 가까이 다가오는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고 곱차와 커피를 마시다가 내려와 경복궁역 새로 개발한 주꾸미 비빔밥에 막걸리를 푸짐하게 먹었다. 박명익이 모처럼 참가를 독려해준 턱으로 점심을 사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백수회 북한산 자락길 산행

석우회(石友會) 57년째 모임(회장 : 박태원) ●●●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 참석자 : 강동식, 김원태, 김옥희, 김윤희, 박일구, 박채길, 박태원, 송철호, 신준철, 윤규성, 이강훈, 진천용(미참석자: 김선욱, 이태경, 이향선, 정철현)

1967년 12월 졸업이 가깝던 때에 학교 부근 일류관 식당에서 김선욱, 박태원 등이 주동이 되어 전국 각지방에서 고르게 선발된 26명의 회원이 창립총회를 갖고 졸업 후에도 매월 만남을 가졌다. 명칭 그대로 石友會는 돌보다 굳은 결속력으로 모임을 계속하는 경



석우회 모임(1978년 어린이날 기념)

영64 최고(最古) 최대 개별 모임 중의 하나다. 현재 회원 16명이 철따라, 3개월마다(3, 6, 9, 12월) 해당 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여름이면 회원 가족들이 버스 대절해서 해수욕도 가고 야유회도 함께하며 졸업 후 57년 동안 꾸준히 만나고 있어 회원들 가정 간의 돈독한 우의를 보여주는 것은 모나지 않은 회원들의 점잖은 행동에서 나온 것 같다. 그동안 네 명의 회원이 작고했고 6명의 회원들이 불참해서 현재 회원 16명이 스크럼을 짜고 풍파를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9월 24일 모임에는 압구정역 부근 오대산 한정식당에 12명이 모여 식사하고 안부와 근황을 소개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등산회 우면산 걷기 ●●●

- 일시 : 2024년 9월 28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덕명, 김원태, 김현희, 박채길, 송병열,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석훈, 이용규, 이정구, 정원교, 홍현묵



등산회 9월 우면산 걷기

가을은 저만치서 오고 있었다. 우면산 길은 무장에 데크길로 더운 날씨에도 그늘진 숲길을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근래 드물게 20명이 참석해서 모두가 더욱 즐거운 걷기를 한 것 같다. 홍일점 김귀분 교장 선생은 여전히 과일을 깎아서 가져와 여러 동기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데크길을 걷고 행길을 건너서 다시 산등성이에 오르는데 동기 6명은 중간에 이탈해 식당으로 갔다. 나머지 회원들은 휴게소에서 차를 마시며 가을 테마 산행을 10월 26일(토) 수원 영흥수목원에 가기로 동의를 얻어 결정했다. 지난 6월 가족을 떠나 보낸 송병열 회원이 위문해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주꾸미 비빔밥에 피자를 곁들인 막걸리 등 푸짐하게 차린 점심식사 비용을 부담하여 모두가 송 회원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인사를 건넸다.

68 회장 이차복 / 총무 김종윤

한마음 모임 ●●●

- 일시 : 2024년 8월 28일 (수)
- 장소 : 교대역 근처 영덕집

입학 45년여만에 부산에 거주하는 안영태 동기가 부산을 대표해서 이번 모임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2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이차복 회장이 취임 후 저녁을 내는 자리였다. 저녁 후 인근 노래방에 들러 그동안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었다. 68 학번동기회는 봄, 가을에 한번씩 걷기모임을 하는데, 오는 10월 10일엔 부산에 거주하는 동기의 초청으로 KTX를 타고 1박 부산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



한마음 모임



69 회장 조현웅 / 총무 이영식

2024 회장 이취임 행사 ●●●

69학번동기회는 8월 21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재선 전임회장의 곤지암 농장에 11명이 모여 정기총회에서 정한 대로 인수인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신·구 회장이 인수인계서를 교환했으며 신임 조현웅 회장은 전임 이재선 회장에게 전 동기회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조현웅 신임회장은 장백희 동기를 감사로, 임채홍 동기를 부감사로 위촉했다. 이어 장어구이와 숯불 돼지고기 바비큐 그리고 각종 과일과 막걸리 및 음료를 나누며 담소를 나눴다. 끝날 무렵에는 기념 타올을 증정했고 이재선 전임회장은 귀가하는 동기들에게 농장에서 바로 수확한 참외 한 보따리씩을 선물했다.



회장 이취임식

74 경영회장 장항덕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입학50주년 기념행사 전 캠퍼스 투어를 마치며 ●●●

· 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전날에 일기예보를 확인했지만 아침에 하늘을 보니 날씨는 괜찮아 보여 다행이었다. 일찍 점심을 먹고 서둘러 입학50주년 기념행사의 식전 행사로 모교 캠퍼스 투어의 시작점인 자연계 캠퍼스의 하나스퀘어 KU표지 앞에서 또 한 명의 준비위원인 74동기와 함께 캠퍼스 투어에 참석하는 80~90여 명의 동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기념품과 생수를 나누고 전체 사진을 찍은 뒤 동기들을 십여 명씩 조편성하고 대외협력처에서 파견해준 여울 홍보



캠퍼스 투어 시작 전 하나스퀘어에서

대사 9명을 각 1명씩 조로 배정하여 조별 사진 찍고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다. 나와 김 준비위원은 늦게 오는 마지막 동기까지 챙겨 하나스퀘어 안으로 들어가 아이스 커피 한 잔씩 하며 맘을 식혔다. 공과대학을 둘러보는데 공대의 발전상에 놀랐다. 공대의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나라와 고대 미래에 끼칠 영향력에 큰 기대를 하게 됐다. 본관 쪽으로 이동하여 학생회관 민주광장 앞에서 캠퍼스 투어팀들과 만나 SK관을 지나 중앙광장 인촌 동상 앞 잔디밭으로 갔더니 다른 투어팀들도 하나둘 모였다. 인촌 동상 앞 잔디에서 70년대의 생각과 추억들이 희미하게 지나갔다. 캠퍼스 투어에 참여한 모든 동기들이 지금은 잔디로 변한 운동장을 바라보는 계단에 앉아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과 재학시절 등교 시 늘 보던 호상 앞에서 사진 하나 남기고 학창 시절을 상기하며 경영 본관을 지나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삼삼오오 교우회관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전달하고 고맙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며 캠퍼스 투어를 의미있게 마쳤다.

경영74 8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4년 8월 3일 (토)

오늘은 모두 7명이 참석했다. 대한극장 앞에서 만난 동기들 6명이 담소를 나누며 남산둘레길을 걸었고 식사 장소에는 손정윤이 참석했으며 오늘 식사는 조군환 경영74 전 회장(현 전체 동기회장)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며 기꺼이 식대를 부담해 주었다. 모두 축하 겸 감사하며 모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2차로 3명은 커피 한잔 마시러 갔으며 4명은 당구장으로 향했다. 9월 모임이 기대된다.



8월 남산걷기

경영74 9월 남산걷기 ●●●

· 일시 : 2024년 9월 7일 (토)

언제나처럼 충무로역 대한극장 앞에서 만나 동기들과 함께 남산골 한옥마을로 들어가서 남산 옛 안기부 건물을 지나 남산순환길 왼쪽으로 돌았다. 한 동기는 국립극장 방향에서 올라와 우리와 반갑게 만났고 또 다른 동기는 남산 정상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일행과 합류했으며 남산걷기 후 우리가 늘 식사하는 냉면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동기를 반갑게 맞아 동기 11명이 점심을 함께하며 한호석 회장 건배 제의에 모두 즐겁게 환담을 나눴다.



9월 남산걷기

구자형 총장은 경영학과와 74학번 전체 동기회의 공지 사항을 알렸고 1시쯤 모임을 끝내고 음식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당구를 즐기는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나머지 동기들은 각자 집으로 향해 가며 다음 달 모임을 기약했다. 오늘 점심은 장항덕 동회회장이 부담해 주었다.

경영74 구자형 총무의 북한산 백운대 올라가기 ●●●

· 일시 : 2024년 9월 18일 (수)

고교(신일고등학교) 동기들과 고교 교가와 응원가에 나온 '우뚝 솟은 백운대'는 젊었을 때 여러 번 등산했던 곳이었다. 청계산 매봉을 함께 올라가던 고교 동창들과 함께 백운대 한번 올라가보자 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 아침에 우의 북한산 역에서 만나 도선사,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깔딱고개라



북한산 백운대(836m) 밑에서

하는 곳에서 숨차게 올라 하루재에서 충분히 쉬 다음, 채비를 갖추고 백운대를 향하여 출발했다. 백운산장에 도착해보니 1924년에 시작된 역사관이 새롭게 변해 있었으며 조금 더 올라가보니 백운봉암문이 보였는데 암문은 공사중이어서 굳게 닫혀 있었다. 암문 오른쪽으로 300m 남았다는 표시가 있어 부지런히 쇠줄을 의지하여 올라가 인수봉의 웅장함을 느끼고 백운대 정상에서 펼쳐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보았다. 백운대를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인수봉, 왼쪽으로는 만경대 이렇게 삼각이 보이고 또한 보현봉도 볼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있을 먼 산행을 기대해본다. 함께 등산한 P총무님과 P원장님, 참으로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74 무역회장 황채연

무역74 입학50주년 행사 가져(동화컬처빌리지에서 1박2일) ●●●

74무역학과(회장=황채연)는 입학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9월 8일 ~9일 양일에 걸쳐 동화컬처빌리지에서 1박2일의 행사를 가졌다. 동기 16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술사 강사 김영숙(서어서문83) 교수를 초청하여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며 야생뿐 아니라 지성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인문학 소양을 배양했다. 그간 여가생활을 통한 동기들의 악기연주와 노래 실력 등 장기자랑으로 여흥을 즐기고, 아름다운 북한강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요가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단련했다. 귀로에는 인근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산책하여 행사를 뜻있게 보냈다. 이번 행사는 10년 전에 이곳에서 입학40주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또다시 이곳에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입학 50주년 기념행사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문화모임(KUCC79) 24차 소식 ●●●

- 일시 : 2024년 7월 5일(금)
- 장소 : 여의도 더현대 서울 6층
- 주제 : 서양 미술 800년展

이번 전시는 로빌란트 & 보에나 갤러리 소장품의 진본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감상하며 관람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전시 작품의 시작은 오토 황제시대 번성한 고딕 회화부터 현대 컨템플러리 회화의 YBA(Young British Artist) 데미안 허스트의 나비 그림까지 개인 상업갤러리의 소장품 전시였다. 그림의 역할과 사회의 변천에 따른 작품의 표현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미를 배가할 수 있다.



서양 미술 800년展 관람

중세 고딕화는 그림의 목표가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 그림을 통해 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교단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 그림이라 성화답게 귀한 금으로 주요 인물을 상징화한 평면화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접하고 아는 17세기 바로크양식을 대표하는 카라바지오의 화풍을 따르는 추종자들인 카라바제스크의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고뇌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림을 그린, 최초의 여성전문화가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서양 최초의 여성전문 페미니즘 작가인데 몇 년 전에 일대기 영화(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가 상영된 적 있다. 그녀는 어릴 때 스승의 강간을 극복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17세기 여성 화가다.

18세기 로코코 화려한 장식 예술 문화에 대한 반감과 폼페이 발굴에 따른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킨 신고전주의와 이태리 그랜드 투어의 효과로 탄생한 베투테 양식의 건축물 풍경화의 사실적 묘사는 이번 전시 관람에서 맛볼 수 있었던 소득이었다.

19세기 초상화의 대가가 그린 빈터할터의 베트만의 초상은 웃감과 머리 팔찌의 사실적 묘사와 자신 가문의 문장이 조각된 액자에 우아하며 고고한 재벌女の 내적 감성까지 느끼게 하는 그림이었다. 특히 17세기 프랑스 바로크와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인 니콜라스

푸생의 그림이 한 점 있었는데 도상학적 해석을 하면 아폴론과 다프네의 신화의 절정 순간을 고전주의 화풍에 따라 평온하게 그렸다. 반면 동일 주제를 바로크의 최고 조각가의 표현은 극적인 샷포인터다.

안면도 피서여행 ●●●

· 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 27일(토)

경영79산악회 주관과 동기회 후원으로 안면도로 피서여행을 떠났다. 아침 8시에 사당역에 모여 해장국으로 식사를 한 26명의 동기는 15인승 두 대의 렌트 차량에 나눠타고 두 시간 반 만에 도착한 안면도. 삼봉해수욕장에서 하차하여 해송으로 우거진 송림길을 걸어서 안면해수욕장까지 트레킹을 했다. 그늘길이었지만 사우나



안면도 피서여행

처럼 찌는 날씨에 트레킹 한 시간 만에 땀에 범벅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 차량으로 이동한 식당에서 꽃게가 들어있는 계국지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방포 해수욕장에 있는 펜션의 숙소에서 짐을 풀었다. 방포해수욕장은 간조시간대라 멀리까지 물이 나가 있어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백사장에 신발을 벗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다시 올 파도의 꿈을 꾸면서 물속에서 물질하기를 30여 분. 수영 실력도 뽐내고 물장난도 하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캔맥주는 최고의 안주인 따뜻한 바닷바람과 새우깡과 어우러졌다. 저녁 식사로 준비한 한우갈비는 자발적으로 나선 셰프들(동기)의 봉사로 맛깔스럽게 구워져서 아사이베리와 막걸리를 부드럽게 식도로 넘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바닷가엔 만조가 되어 기러기가 날아오르고 서해 쪽으로는 석양의 고운 황금빛이 하늘을 금색으로 덧칠하고, 섬고개 위로는 선명한 쌍무지개가 떠올라 여행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아홉시쯤 되니 투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콜성 소나기가 한 30분을 붓고 지나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게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갑오징어 볶음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예정했던 트레킹 코스를 변경하여 해변커피를 한잔씩 한 후에 안면도자연휴양림으로 발길을 옮겨 송림 그늘 길 아래 조개산 1, 2, 3, 4, 5봉을 도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해변에 온 기념으로 조개구이와 모듬회, 해물탕, 해물 국수 등으로 점심을 해비하게 먹고서야 귀경길을 재촉할 수 있었다.

산악회장 장덕윤, 총장 김명국, 식사 찬조해준 총회장 이상현, 부회장 김정태, 현금 찬조해준 골프고문 서동린, 총괄고문 서학석, 사진 봉사 작가 안희준 등 수고해준 동기들께 감사드리며, 먼 거리를 피곤함에도 운전까지 술선하여준 동기와 기타 곳은일 마다않고 수고해준 많은 동기들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즐겁게 피서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KUPGA 2024 하계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25일(일) ~ 27일(화)

유난히 긴 폭염 속 발왕산 자락의 Mona 용평을 찾은 KUPGA 16인의 정예들. 地空居士 즈음의 KUPGA 진정한 골프를 사랑하는 동기들이 인간 생체리듬이 최상에 이른다는 해발 778m 고지에서 3일간의 긴장과 쉼을 즐기는 유쾌한 일정이었다.



3일간의 라운딩

如鳥過目 같은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불과 4년 전 11월 초겨울, 동기들과 함께 했던 그때도 여기 발왕산 자락의 비와 추위도 우정의 열기를 비껴가며 23°C의 화사함과 무지개까지 보여주었던 일정이 기억나며 이 모든 행운과 무탈함 속 즐거운 만남을 지속할 수 있



음은 동기들의 이타적이며 흔쾌히 자신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라 생각한다. 德不孤 必有隣을 생각하게 하는 김성태, 서학석, 신동익, 김정태, 안희준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함께 어울려 즐거움을 선사한 모두에게 감사할 뿐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꽃은 행운상의 주역인 정춘돌과 김석호의 자웅을 겨루는 입담과 라운딩 결과는 모두에게 40여 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을 갖게 했고 최근에 정년 퇴직을 한 송상호 교수는 건방진 옹평CC의 “우리는 그런 딜리버리 서비스는 안합니다”라고 대꾸하는 프론트 직원들을 따끔한 지도편달을 통해 bag딜리버리를 시켜 모두를 편안하게 해줬다.

우리 모두에게 강원 강촌 로컬푸드의 眞味를 안내한 전국 맛기행 지존 서학석 회장의 추천 식당으로 첫날 평창 한우와 오리 참숯 바베큐의 만찬과 둘째 날 오찬으로 부드러운 목사발과 육즙이 남아도는 수육 그리고 향토 메밀국수의 향을 맛보았고, 강릉서 먹기 힘든 자연산 잡어회와 서더리탕 수준의 매운탕이 힘든 일정을 회복하게 해주었다. 특히 라운딩 중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할 뻔한 김정태의 안전기복 夕食布施로 모두들 즐거운 시간과 감사를 표했으며 돌아오는 여정에 곤드레 한상으로 요기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3일간의 컴피티션은 김성태 회장의 기지로 모두가 賞을 받는 즐거운 경쟁이었다. 3일간의 라운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김정태, 서동린, 한병로/메달리스트-김정관, 최수규, 신동익/니어리스트-김진호/롱기스트-양희창/행운상-김석호, 정춘돌, 김영한A

아침가리골 트레킹 ●●●

- 일시 : 2024년 8월 30일(금)~31(토)
- 장소 : 강원도 인제 방태산

8월 마지막 날,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 방태산 계곡인 아침가리골로 떠났다. 30일 강남역 근처에서 해장국으로 아침을 때우고 15인승 렌터카로 출발, 방동리의 '숲속의 하얀 집' 펜션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하산으로 트레킹을 하기 위해 방동약수를 지나 방동고개 안내센터(해발 868m)에서 출발하여 조경동 다리까지 3km를 걸어 내려갔다. 조경동 다리에서 아침가리 계곡길로 접어들어 점심 식사를 하고서 6.5km의 계곡물에 본격적으로 빠지면서 걷기 시작했다. 너무 더운 여름이어서인지 물길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허리와 가슴이 닿는 깊은 곳까지 입수하면서 즐거운 수중 트레킹을 즐겼다. 열여섯 번의 물길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안내원의 말씀대로 계곡물을 건너길 네 시간. 미끄러운 수중 이끼에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고 모처럼 물 밖 길을 건다가 넘어져서 찰과상도 발생했지만 큰 불상사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또 한 동기는 오래된 등산화가 밑창이 뜯겨져서 신발 끈으로 동여매고 하산하는 불쌍사나운 일도 발생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물길을 침범거리며 뛰노는 모습에 회갑이 지나서는 새로 시작한 나이에 걸맞게 노니는 것이 정상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저녁엔 다 같이 모여 우대갈비구이와 소세지를 안주 삼아 방태산 막걸리를 들이키면서 하루해를 정리했다.



아침가리 계곡에서

다음날 수중에 젖은 자동차 키가 말뽕을 일으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소동이 있었으나 근처 편의점에서 배터리를 교체하고서야 정상 가동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아침 식사를 떡국으로 간단히 배불린 후 방태산 자연휴양림을 올라 한 바퀴 돌고서 유명한 '숲속의 빈터'방동 막국수에 들러 점심으로 요기하고 나누어준 감사전을 포장해 해서 배낭에 넣고 귀가하면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큰 불상사 없이 방태산 근처에서 보낸 이틀간의 트레킹은 새로운 경험으로 축적되는 시간이었다. 수고하고 애써준 동기들의 손길에 감사하며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게 어울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화모임(KUCC79)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관람 ●●●

·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 장소 : 광림아트 BBCH홀

문화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오랜만에 약간의 투자(?)로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를 VIP석에서 관람했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4년 차 공연되고 있는 인기 뮤지컬로써 신분 상승을 위하여 살인이 벌어지는 비극이지만 코믹한 블랙 코미디 작품이다. LED Screen으로 진화한 세트와 무대장치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으며 낮익은 배우들의 멋진 노래와 연기는 장시간 관람을 피곤하지 않게 감상할 수 있었다. 1인 9역을 담당한 안세하 배우는 적절한 애드립으로 코믹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남녀 배우들의 티키타카는 완숙한 팀워크와 그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함께 관람한 동기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즐거운 뮤지컬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더 많은 동기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



뮤지컬 관람

9월 정기모임 ●●●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 장소 : 서초동 채미가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일찌기 찾아온 한가위도 지난 9월의 마지막 날, 가을맞이 정기모임을 가졌다. 많은 동기들이 약속된 시간 전에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며 45명이 자리를 채웠다. 어느정도 허기가 가셔지면서 이상현 회장이 나서서 우리의 우정과 건강을 위한 건배사와 후배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성을 보내준 동기들께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지난 8월께 동기들이 조금씩 모아서 전달한 후원금 440만 원을 일부 집행한 튀르키예의 '한국참전용사기념사업회' 회장인 이태영이 참석하여 고마운 동기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9월 정기모임

오성호 사무총장은 그동안 후배 사랑을 위한 장학위원회의 30명 위원들의 참여로 5년 동안의 약정모금이 매년 3,500만 원을 넘기고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창업센터의 자립포상금과 해외 유명대학 박사과정 유학생을 위한 생계비 목적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 쓰여질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근에 일동레이크에서 휴인원을 한 신동익 메가마트 회장은 모든 행운을 동기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발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쁜 딸의 혼사를 앞두고 있는 황영환은 기쁜소식을 알리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많이 참석하여 축복해달라고 인사했으며 식사가 끝나갈 때쯤 도착한 조청명은 청주에 있는 '테크윈'이라는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있어 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 미안하다는 걸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처럼 많은 동기들은 그야말로 '우주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70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청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음을 느끼는 시원한 하루였다.



문화모임(KUCC79) 현대미술 전 관람 ●●●

-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 장소 : 석파정, 서울미술관

어제 절정의 가을 청명한 날 비밀의 정원 석파정 방문. 역사적 주인의 손바꿈은 차치하고 넓은 들과 수목이 울창하여 봄철의 꽃과 가을의 단풍 등 절기에 따라 풍치가 아름다운 승경지임을 확인했다. 석파정은 2006년 안병광 유니온약품그룹 회장이 63억 1,000만 원에 낙찰했다. 미술애호가인 안 회장은 석파정 입구에 사재로 미술관을 설립했고, 이름을 '석파정 서울미술관'으로 지은 후 2012년에 개관했다. 문화재 구역이라 허가받는 기간만 5년, 공사 기간은 2년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성진과 함께 찾은 석파랑은 석파정의 전주인인 서예가 손재형 씨가 사랑채를 세검정 현 위치로 옮겨 Fine restaurant 한식당으로 운영중이다. 모처럼 내자와 함께 찾은 이틀간의 서촌 투어의 완성을 가을날 석파정의 풍류와 안 회장이 수집한 한국현대화 대가들의 작품을 함께할 수 있어 더없는 행복한 문화 방의 행사였다. 수고한 조 총장, 허 회장께 감사드린다. 특히 '나는 잘지내고 있습니다. I'm fine, and you?'란 화제의 전시는 좀처럼 한 공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들을 한 공간에 전시하는 수작 전시회이므로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은 한번 기회를 내어 찾아보기를 권한다. 이우환, 김환기, 김창열, 서세욱, 정상화 화백들의 대작을 한 공간에서 전시하는 기획력과 '화가'는 작품을 만들고 수집가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컬렉터 안 회장의 일생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현대미술 전 관람

80 회장 권현준 / 총무 하만우

전체 모임 ●●●

가을 문화행사가 11월 1일(금)에 예정되어 있다. '추억의 단체 영화관람'을 주제로 '더 플레이스 삼성'에서 저녁을 먹고, '메가박스 삼성' 프리미엄관 2개를 빌려 추억에 남은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 가능한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화사회 소식(회장 : 최윤식) ●●●

- 백두산 산행 (6월 24일~27일)

5월 문형산 산행 시 최윤식 회장이 백두산 등산을 제안하고 현경섭 동기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6월 산행은 화사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3박4일 백두산 산행으로 대체되었다.

6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연길 국제공항을 향했는데 요녕(랴오닝)성 초입 부근 비행 중 길림(지린)성 연길시에 비가 많이 와 요녕성 심양(선양)공항에 불시착을 해야 한다는 기내방송이 있었다. 결국 4시 30분경 도착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8시경 연길 공항에 도착, 두만강 및 중국/북한 국경지대 구경 일정은 그야말로 두만강 눈물이 되어 수포로 돌아갔고 곧장 숙소로 들어가 1박을 보내야 했다.

6월 25일 백두산(장백산) 서쪽 코스로 천지와 금강대협곡에 가야 하는데 전날에 이어 계속 비가 왔다. 장백산에 와본들 '천지 구경을 제대로 한 사람이 천지에 많지 않아 천지'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했다. 가이드는 천지 날씨는 가뵈아 알 수 있다며 서파 일정을 강행했고 1,442개 계단 직전까지 관광/셔틀버스로 이동했다. 천우신조로 서파의 천지는 약간의 운무로 더욱 신성스러운 형세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예상보다 장엄하고 성스러운 모습이었다. 한편으론 중국의 37호 경계비(중국/북한의 국경표시)가 옆에 있어 남북 국토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안아야 했다.

6월 26일 오전에 북파코스로 장백산 북쪽으로 이동해 천지와 장백폭포를 향해 갔다. 북파의 천지는 서파보다 더욱 밝고 성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천지의 둘레길이는 약 14km이고 직경은 대략 3~4km 정도, 면적은 약 9㎢, 평균 수심은 약 210m이라고 하니 전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가 없었다. 장백폭포는 천문봉(2,679m)과 용문봉(2,595m) 사이로 떨어지는 낙차 68m의 폭포로 두 개 물줄기의 하얀 모습으로 떨어지는 웅대한 모습이기도 주위에 '이도백하'라는 마을도 있었다. 그 천지 물은 북서쪽으로 흘러 송화강(송화강)으로 흐르며 동쪽은 두만강, 서쪽은 압록강의 발원지가 되기도 한다. 오후엔 길림성 옹정시 비암산에 소재하는 일송정과 해란(하이란) 강을 볼 수 있었다. 비암산 정상에 있는 일송누각과 바로 옆 소나무에서는 한줄기 해란강과 옹정시내를 바로 볼 수 있어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비밀리에 모이는 최적의 약속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6월 27일 연길발 인천국제공항으로 컴백하는 날이다. 중국의 공항들은 군사/민간 공항의 병용으로 이착륙 즈음에 비행기 창을 닫아야만 했다. 창을 통해 바깥을 볼 수 없으니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그리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벌판을 주무대로 점유했던 동북 3성인 길림성(지린성), 흑룡강(헤이룽장)성 및 요녕성이 더욱 보고 싶었다.

· 사기막골-검단산-남한산성 산행 (7월 23일)

백치석 동기가 손자 돌본다고 인사만 하고 가고 오랜만에 10명이 모였다. 밤새 쏟아부었던 장맛비는 주춤해졌지만, 종일 시간당 3~20mm비가 예보되었기에 사기막골 계곡과 대원사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고 내려오기로 했다. 모란역에 모여서 51번 버스를 타고 사기막골 입구로 갔다. 사기막골 근린공원의 요모조모를 둘러보는데 사기를 굽는 가마솥도 있었고 전통문화 체험관도 있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사기 굽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계곡에서 좀 쉬고 대원사까지 산책만 하려고 했는데 정규언이 계속 산으로 오르자고 했다. 순간 화사회의 평상시 주력인 남한산성 북문-서문-남문 코스가 생각났고 빗길에 검단산을 거쳐 남한산성 남문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모두 검단산 산행에 나섰다. 날씨 좋은 날도 쉽지 않은 사기막골-검단산-남한산성 남문 코스의 종주가 이루어졌다. 경영80의 저력, 역시 대단하네요. 경영80 동기의 집단지성으로 의기투합한 하루였습니다.



화사회 검단산에서

· 청계산 산행 (8월 27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기에 가볍게 청계산 선녀폭포 및 명상숲길 등을 산행하기로 정했다. 참석자는 최윤식 회장과 강우영, 김수동, 백치석, 현경섭 등 5명으로 무더위 덕분에 7월 대비 많이 줄었다. 청계산 선녀폭포는 선남선녀가 되어 만나는 곳으로 처음 갈 때도 마당바위 등을 돌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는데 60대 초로들이 접근하려면 이번에도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옛골 입구에서 오르는데 20여 분 지나 삼거리 좌측 아래쪽으로 군부대 후문과 정토사로 가는 표지판이 보였다. 예전에도 왼쪽으로 안내문이 있어 좌측 아래쪽으로 내려가 선녀폭포를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엔 생각보다 빨리 표지판이 나왔고, 폭포가 낮은 계곡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 시간 이상 더 올랐다. 그런데도 삼거리가 나오지 않아 거의 포기할 각오로 벤치에 앉아 10분 정도 쉬고 있는데 하산하던 분이 있어 물어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한다. 10여 분을 올라 선녀폭포에 가니 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 족탕도 하며 더위를 풀고 우정도 나누었다. 점심은 대왕저수지 부근 '디안'이란 곳에서 만두전골을 먹었고, '로즈마리'라는 커피숍서 커피를 마셨다. 요즘 커피숍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골프회 소식 (회장 : 김현우) ●●●

· 7월 2일, 청평 마이더스CC에서 동기 11명과 동기 부인들 9명 등 20명이 참석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아쉽게 당일 취소됐다.

· 9월 3일, 9월 정례모임에는 동기회 권현준 회장과 하만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 16명이 참석했다. 유례없는 더위로 고생했기에 9월은 조금 나아지나 했지만 여전히 땀별과 고온으로 참가한 동기 모두 더위와 무더진 샷감에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라운딩을 끝내고 시원한 맥주 한잔과 식사로 잠시 호사를 누렸다. 추석 명절을 앞둔 때라서인지 집행부에서 와인 세트를 선물로 준비해주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 10월 1일, 부부 동반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동기 12명, 부인 8명 총 5팀 20명이 참석했다. 신창윤, 변대현, 정창식 등 전임 동기회장들과 권현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태풍 영향으로 비가 예보되어 많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무사히 행사를 치렀다. 행사 후 저녁 시간에는 지난번 동기 모임에서 출신원을 한 신창윤 동기가 수건 세트를 준비하고 권현준 동기회장은 골프공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로 나눠줘 기쁨이 배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같이하는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 같다. 다음 모임은 11월 5일 납회 모임이다. 며칠 전 연초 모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납회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



골프모임

호산회 소식 (부회장 : 한성수, 산악대장 : 최병수) ●●●

· 도봉산 산행 (6월 8일)

오늘 산행지는 도봉산이다. 최윤식 동기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7명이 함께 했다. 비가 계속 내려 우산을 쓰고 산 입구로 걸어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지며 바윗길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에 긴장감이 들며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평평한 길이 없고 계속 오르막에 경사가 있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멍한 상태가 됐다. 햇빛도 없고 기온도 선선한데 금새 방전됐다. 아~ 도봉산이 이렇게 힘든 곳이었나?



호산회 도봉산 산행

마당바위에 도착해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김밥과 이창우 안사람이 손수 만들었다는 수제 빵, 과자와 초콜릿 등을 나누어 먹었다. 원래 계획은 여기서 하산하는 것이었는데 욕심을 부려 신선대까지 가기로 했다. 약 400m 더 올라가는 것인데 경사도 심하고 길도 험해서 가는 길에 종아리에 쥐가 났다. 쇠피이프를 꼭 잡고 다리에 힘을 좀 빼면서 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보니 신선대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 표지판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하산하는데 왔던 길 말고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는데 하산 길은 끝이 안 보이는 계단길이었다. 가져온 물을 다 마셔서 갈증이 많이 났는데 만월암 암자 모퉁이에 고맙게도 등산객들 마시라고 맛있는 차를 끓여서 식혀놓았다. 세 컵을 마셨다. 등산객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스님의 넉넉한 사랑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전함에 시주 한 박상협 호산회장과 박 훈은 부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산을 내려오니 오후 5시가 다 되었다. 뒤풀이는 춘천닭갈비와 막국수로 저녁을 견해 먹고 2차는 교우가 경영하는 카페 '망상'에서 팔빙수와 커피를 먹었다. 오늘 힘든 산행 여정을 함께 한 동기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2차비용을 부담해 준 박 훈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산회에 영원하라!!!

· 7월 13일(토) 용추계곡 산행

하반기 첫 산행지는 용추계곡이다. 대부분이 처음 가는 곳으로 산행보다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러 가는 곳이라고 한다. 물론 용추계곡을 품고 있는 연인산은 해발 1,000m가 넘어 정상에 오르기 쉽지 않다고 한다. 올해가 호산회 창립 10주년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등산용 컵을 기념품으로 준비했다.

청량리역에서 9명이 출발하고, 상봉에서 2명이 출발해 11명이 가평역에 모였다. 택시를 타고 용추계곡 입구까지 이동했는데 택시비는 12,000원 정도. 용추폭포에서 시작하는 1곡부터 9곡까지의

용추계곡길은 걷기 좋은 명품 길 1위라고 하는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오르는 길과 계곡, 바위와 물의 조화가 단순하지 않고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고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풍부해 중간중간 어느 곳에 머물러 물에 몸을 담근다 해도 다 괜찮게 느껴졌다.

계곡물에 몸을 담그자는 생각에 길옆 정자에 짐을 풀고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김밥과 오이, 간식거리에 막걸리를 곁들이며 최근 백두산을 다녀온 월천거사 최윤식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낮 기온이 33도라고 했는데 계곡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서인지 그리 덥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니 온몸에 시원한 계곡물이 스며든다.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진다. 마치 개구쟁이들이 키득키득 즐겁게 노는 그 모습일까? 나이는 60이 넘어도 허물없이 깔깔대며 물 뿌리고 노니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사랑채닭갈비집에서 닭갈비와 막국수, 막걸리로 배를 가득 채우고 가평역을 출발해서 돌아왔다. 최근 딸들을 출가시킨 임규화와 박훈이 소정의 후원금을 내주어 감사하고, 차를 몰고 오려다 차가 너무 막혀 되돌아간 이기승이 안타까웠다. 오늘 즐겁게 동참해준 동기들 모두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함께 했으면 한다. 호산회에 영원하라!!!



호산회 용추계곡 산행

· 8월 10일(토) 청계산 산행

입추가 지났는데도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예보되었다. 지자체의 폭염경보가 아침부터 웅웅거렸다. 오늘 산행지는 호산회에서 매년 갔던 청계산이지만 갠매폭포 쪽은 처음 가는 코스다. 당초 18명이 참가한다고 했다가 김태술과 이기승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해서 16명이 같이 했다.

청계산입구역에서 만나 권현준 동기회장이 준비해온 떡을 간단히 먹고 산행을 시작했다. 아침 박 훈과 뉴욕에서 알던 82학번 후배가 혼자 청계산 산행을 왔다가 우리모임에 동참했다. 청계산 초입 만남의 광장에서 체조반장 월천거사 최윤식의 리드 체조로 몸을 풀고 걷기 시작했다.

진달래 능선으로 해서 옥녀봉까지 가려 했는데 후미는 처져서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는 선두 그룹은 이미 옥녀봉으로 갔다고 했다. 후미팀은 옥녀봉을 포기하고 갠매폭포로 향했다. 갠매폭포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동기들이 폭포 물을 맞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다. 서둘러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로 들어갔다. 물이 떨어지는 바위에 몸을 기대 차가운 폭포 물을 온몸으로 받는데 등골까지 시원했다. 잠시 후 옥녀봉팀이 도착해서 함께 물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폭포 옆 적당한 공간을 찾아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 야채, 과자 등을 나눠 먹으며 떨어진 기력을 보충했다.



호산회 청계산 산행



하산은 현대미술관, 과천대공원 쪽으로 해서 '포도밭오리집'이란 식당으로 이동, 오리볶음에 맥주와 막걸리를 곁들여 배불리 먹고 최근 둘째 손주를 어렵게 얻은 김 건 동기가 2차를 사겠다고 해서 대공원 옆 빵공장에서 맛있는 빵과 커피를 먹으며 오늘 산행을 마쳤다. 많은 동기들이 참석해줘서 고맙고 산행을 리드해준 박상협 회장과 최병수 산악대장, 정규언, 최승석 고문에게 감사하며 수제안마기에 2차 빵과 커피, 그리고 예술성 사진에 산행 후기까지 다 해준 김 건, 맛난 떡을 제공해준 권현준 회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에 더위가 물러가면 더 많은 동기들의 참여로 더 건강해지는 호산회를 기대해 봅니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9월 21일(토) 관악산 산행

오늘 산행지는 관악산으로 고도 632m, 산 정상의 바위가 마치 갓을 쓰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어 당초 예정했던 연주대 등정을 변경하여 도란도란 돌레길을 걷기로 했다.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구로 이동해서 도란도란 돌레길로 향했다. 비온 뒤의 청량감 그리고 등산로 바닥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이 상쾌함을 주어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었다. 호암사 방향으로 오르다 조그만 정자에서 잠시 쉬면서 간식을 나눠 먹는데 땀이 식으며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여름 내내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되려나 보다.

짧은 휴식 후 다시 산행을 하는데 돌레길 치고는 제법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서 만만히 볼 코스는 아니었다. 계곡물의 수량도 풍부하고 징검다리도 건너며 빠른 물살에 손도 담가보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호암사에 도착하기 전에 2차 휴식을 가졌다. 김밥과 과일, 견과류를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그마한 농담에도 빵 터지는 분위기, 동기가 이래서 좋다.

무악대사가 지었다는 호암사에 잠시 들러 단체 사진을 찍고 호암산 정상으로 향했다. 정상에서 보니 서울이 한눈에 보였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경치 구경과 사진을 찍고 칼바위능선 쪽으로 하산하는데 내리막 계단이 끝없이 나왔다. 사용자는 편한데, 계단 데크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풀이는 뽕돈이라는 식당에서 삼겹살, 목살에 소주, 맥주로 목을 축였고 맛있는 지단 냉국수로 배를 채웠다. 주당파인 백치석, 현경섭, 이기헌, 박 훈은 2차 하러 사당으로 가고, 먼저 귀가한 이현우, 양후석, 이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처 커피숍에서 맛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먼저 일어서는 게 미안했던지 10만 원을 지원해주신 이현우, 그리고 오늘 산행을 리드해주신 정규언, 최승석 두 고문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제 날씨도 등산하기 좋은 날씨여서 더 많은 동기들이 함께 등산하며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호산회 관악산 산행

81 회장 송재현 / 사무총장 신동훈

고글회 6월 골프모임 ●●●

- 일시: 2024년 6월 3일(월)
- 장소: 몽베르CC

올해 새로 추대된 고글회 회장 이상돈 동기와 경영81 회장 송재현 동기가 신경을 써서 시설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하는 몽베르CC



고글회 6월 모임

에서 36명이 두 코스에 9팀으로 편성하여 자웅을 겨루고 2부에선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우승과 준우승 등의 시상 행사 및 김종양 동기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와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고 모임을 마쳤다.

84 경영회장 류기홍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 정기총회 개최(입학 40주년 기념행사 준비) ●●●

84학번에게 2024년은 입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1월 2일 모교 방문 행사에 앞서 9월 10일 골프회, 9월 25일 총회를 개최했다. 84학번은 통상 11월 말에 총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모교 방문 행사에 앞서 70명이 모였다. 류기홍 회장은 향후 질적 변화를 필요하다고 보아 동기회 운영 방안과 집행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진 총회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동기들의 근황, 학창 시절과 동기회 관련 사진 영상, 40주년 행사 계획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남택진, 도한익, 류기홍, 문상철, 박기호, 박병성, 박태영, 손재일, 신종근, 윤귀만, 윤영원, 이순규, 이준근 동기는 현금과 현물을 찬조하여 모임과 참가자들의 귀가를 풍성하게 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11월 2일 모교 방문 행사의 일환인 플래시몹 댄스, 영화 <써니>의 음악에 맞춘 율동인데, 84학번동기회의 댄스동아리 여성 교우들이 참석해 시연했고 이를 84동기회 밴드에 올려 다른 학과 동기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정기총회 개최

공인회계사 교우회 회장 정석우(경영80) · 총무 윤여현(경영96)

공인회계사교우회 정기총회 개최 ●●●

공인회계사교우회(회장=정석우·경영80)는 10월 16일 교우회관에 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신입회원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 2024년 사업내역 및 수입·지출 결산내역 보고, 정진초 지원금 지급, 합격자 축하패 수여, 신입 파트너 축하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올해 모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자 182명을 배출하여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강원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재연(경영87) 교우에게 특별공로패를 전달하였다.



2024 정기총회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 · 학생대표 이예린(경영21)

경영대 교우회 무료주점 행사 참여 ...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어느덧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까지 경영대학 교우회 집행부로서 교우들과 학생들 사이 연결고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 늘 정진하고 있다. KUBS LADIES 집행부는 고연전 날, 경영대 교우회 무료 주점을 경영대 학생회와 함께 운영하여 여러 선배 교우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2로 고연전을 비기면서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한데 모여 행사의 기쁨을 나눴고, 선배 교우님들이 정겨이 후배들을 맞이해줬다. 또한 교우회장님, 총장님, 학장님 등 많은 선배님들이 주점에 방문하여 경영대 학생들을 위해 덕담을 전했다.



경영대 교우회 무료주점 행사 참여

2학기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 ...

2024년 Good Evening은 현재 2차 미션을 진행 중인 상태다. 각 팀이 멘토를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며, 현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듣고 질의를 나눴다. 연말에 2024년을 마무리하고자 Good Evening 클로징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KUBS LADIES BLOSSOM ...

현재 KUBS LADIES BLOSSOM은 교우회 집행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선배 교우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더 많고 다양한 경영대학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애로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선배 교우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 나은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항상 집행부에 도움 주시는 교우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KUBS LADIES는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as@kubsas.or.kr



97학번 Family Day

김영일 (경영97·E반)

2024년 8월 25일 뜨거운 햇살이 가득한 일요일에 97학번 동기들 23명과 가족이 LG POSCO관 안영일 홀에 모였다.

유아에서 중고등학생 그리고 배우자까지 80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권성우 부학장님의 감동스런 발표를 들었다. 권성우 부학장님은 안식년임에도 부산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터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맛본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는 오찬을 했다. 홍보대사들의 열띤 학교 설명과 교정 투어를 통해 97학번 교수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가족들에게 자랑스런 학교를 소개했다. 전체 97학번 동기회 회장인 김훈경 교수는 다가오는 교우의 밤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오랜만에 함께한 동기들 가재은, 강민, 강민수, 강성민, 권순기, 김성우, 김성훈, 김승찬, 김영일, 김훈경, 박상준, 손창호, 엄원진, 이경배, 이경택, 이승민, 이우덕, 이재길, 임재석, 정승용, 정필용, 조유성, 진경언 모두 처음에는 수줍어했으나 안암동 호랑이답게 패기와 열정으로 협심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사우디 경제사절단의 Alaqil 가족도 참석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전통과 매력에 빠졌고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적극 홍보하기로 약속을 하기까지! 글로벌 고대 경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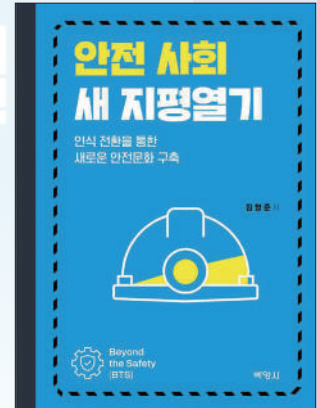
안전 사회 새 지평열기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안전문화 구축

서 명 안전 사회 새 지평열기
저 자 김형준(경영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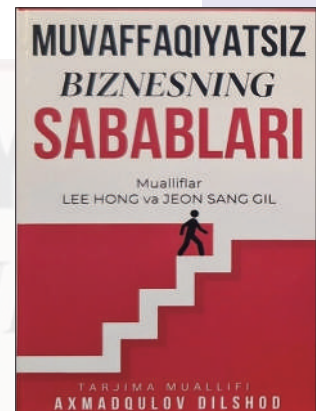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8.30.

안전을 0순위라고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에 대한 순위는 밀려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난과 사고는 사회가 기술집약적, 밀집화, 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기후 재난이 겹치면서 대형 복합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모든 국민이 안전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안전 사회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전환의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 대응 방식이 아닌 조직행동론, 심리학, 코칭학, 법철학 등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Muvaffaqiyatsiz Biznesning Sabablari

서 명 Muvaffaqiyatsiz Biznesning Sabablari 출판사 Fan ziyosi nashriyoti
저 자 이 홍(경영77), 전상길(경영83)



한국의 경영혁신서, 우즈베키스탄에 소개되다!

이 홍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상길 교수(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공저한 '실패하는 비즈니스에는 이유가 있다'(삼성글로벌리서치, 2023)가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글로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동네 치킨집까지 사업 운영 전략을 소개하며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비즈니스의 실수를 일깨워주는 4가지의 '거울'을 볼 것을 주문한다. 내년 우즈베키스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할 주요 프로그램의 교재로 이 책이 채택됐다.

이 책의 공저자인 이 홍 교수와 전상길 교수는 고(故) 김인수 교수의 제자다. 번역은 현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전략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딜 쇼드 학생이 담당했다.

인도 컨슈머 파워, 새로운 미래를 선점하라

서명 인도 컨슈머 파워, 새로운 미래를 선점하라

저자 현동식(무역90)

출판사 바른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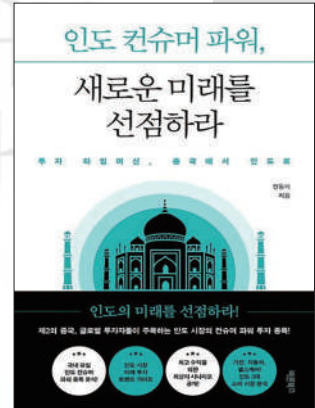
출판일 2024.8.16

저자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투자 타임머신' 전략을 소개한다. 이 책은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을 탐구하며,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한다.

책은 인도의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의 기회를 분석하며, 특히 인도의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업종에 주목한다. 저자는 중국에서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업종과 종목들을 분석한 뒤, 이와 가장 유사한 인도의

유망 종목들을 발굴했다.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성장하면서 중국과 유사한 발전궤적을 따라간다면 중국에서의 대박 종목들이 인도의 주식 선택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으로 보고 독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인도 주식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제도, 주요 업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인도의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통해 독자들이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탈북 32년, 두만강 넘어 시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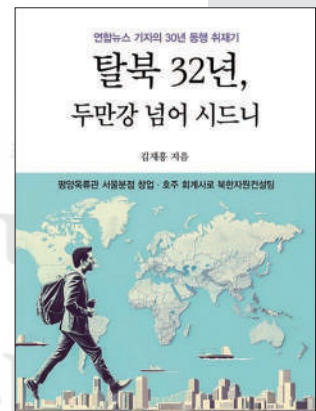
서명 탈북 32년, 두만강 넘어 시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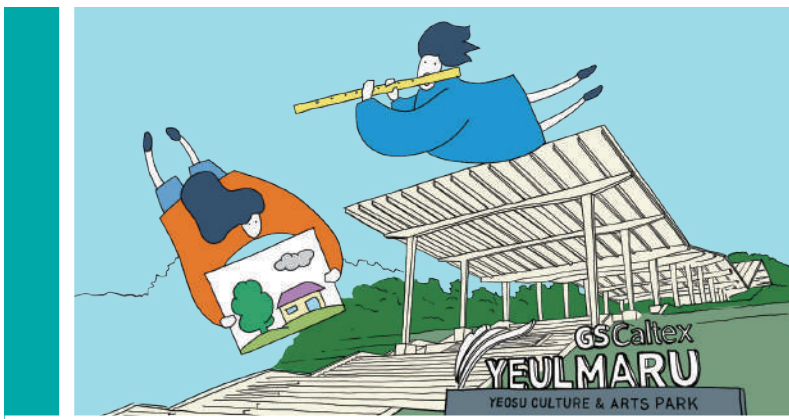
저자 김재홍

출판사 황금알

출판일 2024.7.25

이 책은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가 1995년 고려대에서 만난 인연으로 목숨걸고 북한을 탈출한 청년 에디(윤 욱, 경영95)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32년의 삶을 기록한 동행 취재기다. 소설 형식이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에디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청진광산금속종합대학의 지구물리탐사학과를 다닌 에디는 한국에서 평양 옥류관 서울분점 창업과 나우누리 정보제공 사업가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영국 유학 후 자녀 교육을 위해 호주에 자리잡은 뒤 호주 회계사(PA)와 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문가가 됐다. 에디는 우리 민족 핏속에 흐르는 개성 상인의 DNA가 성공에 대한 욕구이자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이라 여기며 북한, 한국, 영국, 호주 등 여러 환경을 거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탈북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이 책을 통해 전했다.





좋은 에너지는 계속 이어진다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이름, 만날 때마다 채워지는 에너지!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힘이 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플러스 허브'에서 만들어 가는 일상 속 좋은 에너지에서
나눌수록 커지는 따뜻한 삶의 에너지까지...
GS칼텍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의 가치를 이어 갑니다.



에너지로 앞서는 편리한 생활

에너지플러스 허브
EV 충전, Smart 세차, 물류거점 서비스 등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에너지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및 난방유 지원
지구톡톡 지구를 위한 시민 행동변화 캠페인
마음톡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술치유 지원
에너지플러스 장학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인재 양성 지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시민·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세상에겐
내일의 기술.



두산에겐
오늘의 기술.

두산로보틱스

사람과 함께 일하는 두산의 협동로봇



파워, 안전성, 정교함을 모두 갖추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일하는 협동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노동력 문제에 답이 되는 기술
사람과 로봇의 시너지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두산은 지금,
사람을 대신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던 로봇 기술을 넘어,
사람과 함께 일하며, 사람을 돕는 협동로봇 기술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